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를 통해 본 식물명의 유래

조민제⁺, 이웅⁺⁺, 최성호⁺⁺⁺

1. 서론

식물에 대한 국명(common name, 이하 본 글에서 식물명 또는 식물명[국명])은 하나의 국가 또는 언어권을 가진 단위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식물 이름을 말한다.¹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분류학회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국가 표준 식물 목록”은 지방의 방언이나 식물 도감 등에 기재된 같은 식물에 대한 이명(異名)과² 구별하기 위하여 추천명이라는³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식물명(국명)은 학

⁺ 법무법인 사공, hayun21c@naver.com

⁺⁺ Ecosoup 생태연구소, acerbenryi@naver.com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csun-ghoo301@gmail.com

¹ 이우철은 이를 보통명(국명)이라고 칭하고 각 지역에서 사용하는 식물 명칭을 “방언”이라 하고 있다. 이우철, 『한국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3. 한편 “국가 표준 식물 목록”(2018)은 국가 또는 언어권에서 주요하게 사용하는 식물 명칭 자체를 “국명”이라고 하고 그중 대표적인 이름을 “추천명”으로 별도로 개념화하고 있으나, 용어 차이 외에 달리 의미상 차이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명을 달리 향명(鄉名, vernacular name) 또는 속명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는 성은숙, 『수목의 이해』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33 참조.

² 국명의 이명(異名)이란 학명에 대한 이명의 의미가 아니라 국명 중에서 추천명이 아닌 것에 대한 명칭으로 사용된다. 학명의 이명(synonym)에 대하여는 국제식물학회, 장진성·홍석표·윤희김, 『조류, 균류와 식물에 대한 국제명명규약 (멜버른 규약, 2012)』 (국립수목원, 2017), 150 참조.

³ 이덕봉,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朝鮮産 植物의 朝鮮名考)”, 『한글』 5:1 (1937), 10 및 이후

명(scientific name)이 식물의 각급 분류군에 붙여진 명칭 중에서 식물학에서 사용되는 세계 공통적인 명칭을 의미하는 것과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학명은 국제적인 명명 규약(“International Code of Nomenclature for Algae, Fungi, and Plants” [Melbourne Code], 2012. 이하 “국제 명명 규약”)에 따라 엄격히 규율되지만 식물명(국명)은 그러한 규칙이 없다. “국제 명명 규약”을 준수한 학명은 올바른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정명(正名, correct name)이라고도 한다.⁴ 그에 비해 식물명(국명)은 그 식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언어 공동체의 다수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이 선호하는 이름을 정한 것이다.

고려 및 조선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여러 목적에서 식물 이름을 기록하여 왔다. 한약재에 사용할 목적으로 『향약구급방(鄉藥救急方)』과 『동의보감(東醫寶鑑)』(1613) 등에서 한자 또는 한글(또는 이두식 차자 표기)로 식물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사전(事典)의 경우에는 『사성통해(四聲通解)』(1517)와 『물명고(物名攷)』(1824) 등에서 식물명이 한자 또는 한글로 기재되었고, 『한불사전(韓佛字典)』, 『교린수지(交隣須知)』 및 『한영사전(韓英字典)』은 외국인 또는 외국 기관에 의하여 발간되었음에도 한글명을 기록하였다. 또한 화훼나 농업, 목재 등의 사용 목적으로 『양화소록(養花小錄)』(1464), 『산림경제(山林經濟)』(1715)와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1827) 등에서 다수의 식물명을 수록하고 그 형태와 쓰임새 등을 논하기도 하였다. 그 외 구황의 목적으로 『구황촬요(救荒撮要)』(1554) 등에 여러 식물명이 실리기도 하였으며, 각종 시문이나 산문에서 자연을 논하면서 식물명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식물명 기록의 방법과 내용은 린네(Carl von Linné, 1707-1778)가 근대 식물 분류학을 도입한 이후 획기적으로 변화했다.⁵ 그 이전의 본초학, 화훼학, 농학 등에서 식물을 특정한 목적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기록하였다면, 린네의 근대 식물 분류학은 분류 자체를 목적으로 했다. 무엇보다도 식물 분류학이 낳은 근본적 변화는 분류되는 종(種, species)의 수적 증대였다. 분류 자체

철, 앞 책, 3은 “표준명”이라 하고, 정태현·도봉섭·심학진, 『조선식물명집(朝鮮植物名集)』(조선생물연구회, 1949), 6은 “통일명”(統一名)이라고 하였다.

4 “국제 명명 규약”은 정명(correct name)을 “특정의 한계, 지위 및 계급을 가진 분류군에 대하여 (“국제 명명 규약”)의 조항에 따라 적용해야 하는 학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학회, 앞 책 (각주 2), 140 참조.

5 린네의 근대 식물분류학이 식물사에서 가지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는 애너 파보르드, 구제원 옮김, 『2천년 식물탐구의 역사』 (글항아리, 2011) 참조.

가 목적이 되었으므로 이전에 별개의 종으로 인식하지 않았던 수많은 식물들이 새로이 분류되고 그에 대한 학명이 부여되었다. 그와 더불어 그것을 부르기 위한 각 언어권의 식물명(국명)을 정하는 작업이 뒤따랐다. 또한 분류의 목적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의 분류 방식도 바뀌었다. 예를 들어 본초학의 관점에 따른 식물명은 약성(藥性)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성이 비슷하면 다른 종의 식물도 같은 명칭으로 분류했으나, 근대 식물 분류학의 관점에서는 식물의 형태나 유전적 특성에 따른 종의 분류와 분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재분류와 새로운 명칭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19세기 초중반에 린네의 근대 식물 분류법을 적용해 이토 케이스케(伊藤圭介)가 『태서본초명소(泰西本草名疏)』(1820)를, 이이누마 요쿠사이(飯沼慾齋)가 『초목도설(草木圖說)』(1856)을 저술하여 발전의 길을 닦았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19세기 초에 이미 유희의 『물명고』나 서유구의 『임원경제지』와 같이 독창적인 분류 방법에 따라 형태나 쓰임새를 상세하게 고찰하는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쇄국 정책에 따른 국제적 고립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근대 식물 분류학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한반도에 린네의 분류법에 따른 근대 식물 분류학이 도입된 것은 일제 강점기였다. 일제는 식민지 조선의 식물을 활용하기 위해 한반도 분포 식물에 대하여 근대 분류학에 따른 조사를 행하였다. 이를 위해 1913년 나카이 다케노신(中井猛之進, 1882~1952)을 한반도 식물을 연구하기 위한 촉탁 교수로 임용했다. 또한 조선에 분포하는 식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실태 조사 목적으로 당시 조선에서 부르던 조선명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학명이나 일본명에 부기하여 조선에서 사용하는 조선명을 한글 또는 일본어 표기로 기록하기도 하였다. 일제 강점기 직전에서부터 『조선식물향명집』이 저술된 1937년 3월 사이에 일본 또는 일본인이 참여하여 조선명을 기록한 문헌은 <표 1>과 같다. 이러한 실태 조사 및 기록은 조선어를 잘 몰랐던 일본인이 파악한 식물명으로서, 조선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부분적이거나 파편적 기록이었고, 오해와 오기(誤記)도 상당히 포함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임업시험장(林業試驗場)의 기사로서 실무 경험 및 이론을 익힌 정태현(鄭台鉉, 1882-1971), 식물 관련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었던 도봉섭(都逢涉, 1904-?), 이덕봉(李德鳳, 1898-1987) 및 이휘재(李徽載, 1903-1986)로 구

성된 『조선식물향명집(朝鮮植物鄉名集)』의 저자들은 근대 식물 분류학이라는 과학을 일본인을 통해 배우면서 동시에 조선인에 의한 식물학 연구와 식물명(국명)으로서 조선명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33년 조선박물연구회 식물부를 구성하였고 3년 이상의 노력을 거쳐 1937년 3월에 『조선식물향명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반도 분포 식물에 대한 식물명(국명)은 학문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⁶ 그러나 『조선식물향명집』은 식물명을 학명, 일본명 및 조선명 순으로 기록한 명집(名集)으로서 식물명의 내력을 밝혀 놓지 않아 이름의 유래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며 『조선식물향명집』이 기록한 식물명(국명)의 의미에 대하여 오해가 폭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표 1. 일본인(또는 일본 기관)이 참여하여 조선명을 기록한 문헌

문헌명	저술연도	조선명의 표기
告示 第9號, 『和韓漢名對照表』大韓帝國農工商部 ⁷	1910년	한글 표기
告示 第18號, 『朝鮮主要森林樹木名稱表』朝鮮總督府官報	1912년	한글 표기
告示 第226號, 『朝鮮主要森林樹木名稱表』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한글 표기
告示 第227號, 『朝鮮主要森林樹木名稱表』朝鮮總督府官報	1915년	한글 표기
中井猛之進, 『濟州島竝莞島植物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4년	가나 표기
中井猛之進, 『智異山植物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4년	가나 표기
石戶谷勉, 『朝鮮漢方藥料植物調査書』朝鮮總督府	1917년	한글 표기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朝鮮農會	1919년	한글 표기
朝鮮總督府, 『朝鮮語辭典』朝鮮總督府發刊	1920년	한글 표기
森爲三, 『朝鮮植物名彙』朝鮮總督府學務局	1921년	한글 표기
石戶谷勉·鄭泰鉉, 『朝鮮森林樹木鑑要』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23년	한글 표기
宮川類吉·牧野壽榮, 『朝鮮野外植物圖鑑』京城櫻井公立小學校理科研究部	1928년	한글 표기
濟州島營林署, 『濟州島植物』濟州島營林署發刊	1930년	가나 표기
村田懋麿, 『土名對照滿鮮植物字彙』東京目白書院	1932년	한글 표기
速水米平, 『鮮名對和名之部』安州公立農業學校校友會	1934년	한글 표기

6 이정, “식민지 과학 협력을 위한 중립성의 정치: 일제강점기 조선의 향토적 식물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266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중의 정치성”이라고 표현하고, 이에 대해 “식민 현지의 조선인과 일본인 연구자들이 중심부 과학과 경쟁하며 연구자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공히 향토적 식물 연구를 내세우는 넓은 차원의 정치성과, 제국주의의 도구로서 더욱 정치화된 과학 활동을 통해 조·일 각각의 상이한 ‘향토성’을 담은 향토 연구를 탄생시키는, 함의되지 않은 식민 지배를 둘러싼 대립적 정치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京畿道林業會, 『朝鮮の山果と山菜』 京畿道林業會刊	1935년	한글 표기
林泰治·鄭泰鉉, 『朝鮮産野生藥用植物』 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6년	한글 표기
中井猛之進, 『朝鮮森林植物編 1~22輯』 朝鮮總督府	1913~39년	가나 표기

오래 전부터 일본명[和名]의 유래에 대한 연구를 식물학의 한 분야로 본 일본의 경우는 관련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이를 총합하여 식물도감 서술의 중요 부분으로 포함시켜 왔으나,⁸ 식물의 한국명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에서 앞선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을 대상으로 그 유래를 밝히거나 이를 언급한 최근의 선행 문헌으로는 이우철, 『한국 식물명의 유래』 (일조각, 2005), 이운옥, 『창씨개명된 우리꽃』 (인물과 사상사, 2015),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1』 (자연과 생태, 2013),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2』 (자연과 생태, 2016)을 들 수 있다(이하 이 문헌들을 총칭하여 “선행 문헌”이라 한다).

이 중 이우철은 식물명(국명)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서 “(i) 전래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명, (ii) 학명에 따른 것, (iii) 외래명에 따른 것, (iv) 식물의 특성, 습성, 최초 채집지나 채집자명을 따서 제정한 것”을 제시한 뒤 “식물명 국명은 학명과 일본명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다”고 언급했는데, 이 정도가 『조선식물향명집』에서 뼈대를 형성한 식물명(국명)에 대해 전체적 파악을 시도한 사례이다.⁹

이러한 선행 문헌 중에는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이 친일적 기원을 갖는다고 비판한 경우도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제국주의에 길들여진 식물학자들이 일제의 식민적 자원 착취를 등에 업고 자신의 학문적인 업적을 위해 조선의 식물을 조사하면서 일본어로 지은 이름을 무비판적으로 번역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거나,¹⁰ “우리나라 식물

7 일제에 의한 강제 합병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10년 5월 3일 대한제국 농공상부 명의로 고시된 것이므로 엄밀하게 보자면 일제 강점기의 문헌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고시는 한반도 분포 주요 수목에 대하여 학명, 일본명(국명), 일본 한자명, 조선명, 조선 한자명을 기록하였고 산림국 및 임업사업소의 공문서에서 수목명을 사용할 때 일본명을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1912년의 조선총독부 고시 제8호에 정식으로 승계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후 조선 총독부가 고시로 반포한 『조선주요삼림수목명칭표』와 같은 성격의 문헌으로 판단된다.

8 이러한 성과가 집대성된 것으로 牧野富太郎, 『牧野日本植物圖鑑』 (東京: 北隆館, 1940) 참조.

9 이우철, 앞 책 (각주 1), 4.

이름의 혼동과 정체성을 잃게 된 비탄은 20세기 초 일제의 『조선식물명휘(朝鮮植物名暉)』에서 그 까닭을 찾을 수 있다. 일본식 이름에 끼워 맞춘 식물명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형편이라는 지적이 그 사례이다.¹¹

그런데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조선명이 어떠한 원칙과 유래에 근거하여 기록된 이름인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조선식물향명집』의 서두에 실린 “사정 요지(査定要旨)”가 있고,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 중의 하나인 이덕봉이 1937년에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발간한 잡지 『한글』에서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국화과 식물 139종이 어떠한 내력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약론(略論)한 논문인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朝鮮名考)”가 있다.¹²

본 글은 (i)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를 통해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의 의의와 내용을 살펴 선행 문헌의 기본적인 분석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ii)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 근거하여 이덕봉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1937년 1월)에 실린 국화과 139종의 기준과 유형을 분석하며, (iii)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에 대한 일본명을 비롯한 외국명과의 영향성 정도를 고찰하여 선행 문헌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2.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 대한 고찰

2.1.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의 의의

『조선식물향명집』은 조선박물연구회 식물부에 소속된 조선인 학자들이 표본과 기재문의 내용 등을 확인한 한반도 분포 식물에 대한 학명과 일본명 및 조선명을 기록하여 발간한 본문 169쪽의 얇은 책자이다.¹³ 그런데 『조선식물향명집』은 책의 서두에서 식물명(국명)을 기록한 원칙과 기준을 기술하였는데, 그것이 바

10 이윤옥, 『창씨개명된 우리풀꽃』 (인물과 사상사, 2015), 121.

11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1』 (자연과 생태, 2013), 785.

12 이덕봉, 앞 글 (각주 3), 10-14이 바로 그것이다.

13 이에 반하여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朝鮮總督府學務局, 1921)는 그 본문의 양이 『조선식물향명집』의 두 배에 가까운 372에 이른다.

로 “사정 요지”이다.

이 “사정 요지”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주요 저자들이 해방 이후에 보다 확대하여 발간한 『조선식물명집』(1949)에서도 몇몇 표현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을 서두에 그대로 기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술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식물명(국명)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중요한 원칙을 천명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은 그 이후 저자들 스스로에 의해 일부 이름이 변경되기도 하였고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일부는 채택되지 않기도 하였지만, 현재 식물명(국명)의 중요한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는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식물명(국명)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소중한 가치가 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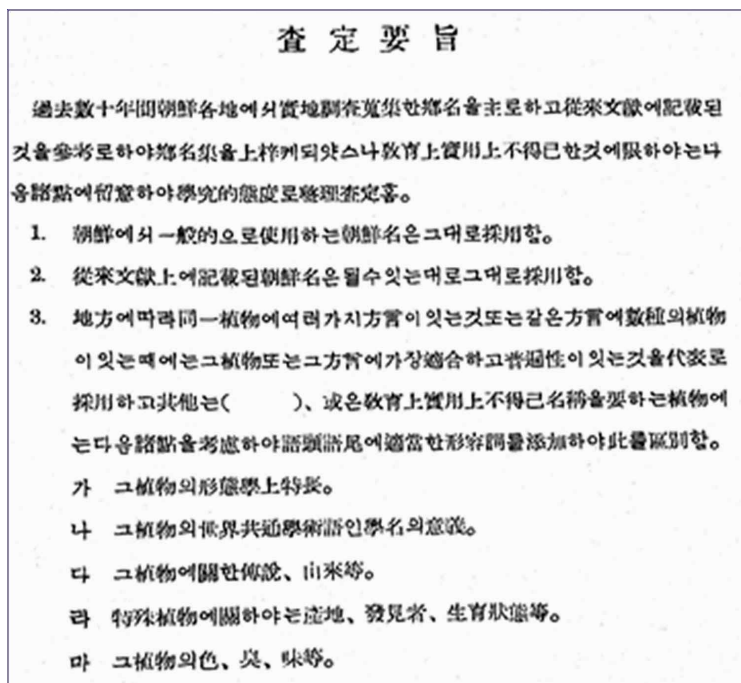


그림 1.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조선식물향명집』 序, 4에서 인용)

¹⁴ 정태현·도봉섭·심학진, 앞 책 (각주 3), 6 참조.

2.2. 사정의 의의, 유래 및 대상

(1) 사정의 의의(명명과의 구별)

학명은 어느 지방, 어느 나라에 살든지 혹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모두 소통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한 국제 공용어이다. 학명을 부여하기 위한 분류군(taxon)은 공통의 선조로부터 진화해 나온 하나의 진화선(evolutionary line)을 대표하는 분류학적 단위를 일컫는 것으로 그 기본 분류군은 종이다. 따라서 종에 대한 학명은 분류학(taxonomy)에 근거하며 과학적 체계와 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과학의 영역이고 그 본래의 성격은 명명(命名)이다. 식물명의 명명은 대상인 식물 종 및 그 분류군에 대하여 명명자가 이름을 지어 붙였음을 의미한다.

린네에 의하여 1753년 확립되어 근대 식물 분류학의 토대가 된 학명 부여 방법인 이명법(binomial system)은 속명(genus), 종소명(epithet)과 더불어 명명자(命名者)가 명기된다.¹⁵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학명 부여를 위한 규약을 “국제 명명 규약”이라고 하는데, 그에 따라 정해지는 학명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 한 종의 식물은 하나의 학명을 갖고, (ii) 학명은 린네의 이명법에 따른 저술인 *Species Plantarum* (1753) 이후의 것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소급 적용되며, (iii) 학명은 출판의 선취권에 근거하고, (iv) 학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준 표본이 정해져야 하며 필요한 모든 정보가 유효하게 출판되어야 하고, (v) 학명은 어원에 관계없이 라틴어로 주어지며 종소명과 속명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에 비해, 새로이 학명을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분류된 학명에 따라 해당 식물이 동일 종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흔히 동정(同定, identification)이라 하는데, 이는 학명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명명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런데 『조선식물향명집』은 한반도 분포 식물에 대한 조선명을 정리하고 기록함에 있어서 명명이나 동정과 는 전혀 다른 개념인 “사정(査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사정은 사전적으로 “조사하거나 심사하여 결정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조사하거나 심사할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 즉 명명이 해당

¹⁵ 이에 대하여는 Carl von Linné, *Species Plantarum* (Stockholm, 1753) 참조.

¹⁶ 이우철은 식물 가족의 구성과 분포를 조사함으로써 그 분류군과 계통을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과 그 사람을 “식물 호적”과 “식물 호적 계원”으로 비유한 바 있다. 이우철, 『한국 식물의 고향』 (일조각, 2008), 15.

식물 중에 대하여 명명자에 의하여 학명을 부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면, 사정은 이미 존재하는 식물의 이름을 조사하여 그 중에서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사정에 대하여 『조선식물향명집』 “서(序)”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茲)에 편자(編者) 등은 종래부터 연구 조사하여 오든 차에 일층 채집과 조사에 진력하는 한편 3여 년 간 100여 회의 회합에서 편자 등의 수집한 방언을 토대로 하고 전기(前記) 문헌을 참고로 하여 식물 명칭을 사정(査定)하기 범 2000여 종에 달하였다.

(2) 사정이라는 방법의 유래

식물명(국명)에 관한 명명과 구별되는 사정이라는 방법은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창안한 고유한 것일까? 1933년 5월 조선인 생물학자들이 모여 창립하였고, 『조선식물향명집』 저자들이 참여한 조선박물연구회의 목표로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박물 명칭의 사정”이었다.¹⁷ 이는 식물을 포함한 생물의 조선명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의 사정이 당시 생물학 연구에서 보편적이었던 방법이었음을 의미한다.

시야를 조금 더 넓혀 조선박물연구회 밖을 살펴보면, 조선어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고, 연이어 조선어 표준말 사정 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그 활동의 결과 1936년 10월 28일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였다. 이처럼 사정은 조선어학회에 의해 실제 사용된 조선어 표준말을 정하는 방법론이었다. 이것이 『조선식물향명집』에 영향을 미쳐 식물명(국명)을 정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황은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술과 식물명(국명)으로서 조선명의 사정이 당시 조선어학회를 필두로 한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¹⁸

¹⁷ 이에 대하여는 조선박물연구회 창립에 관한 당시 신문 기사로서, “各學校博物敎員網羅 博物研究會創立”, 『동아일보』 1933.6.27, 1면 참조.

¹⁸ 『조선식물향명집』 저자들과 함께 조선박물연구회에 참여하고 조선어학회가 발간한 『한글』에 자주 논문을 투고하였던 나비 연구가 石宙明(1908-1950)은 “종래로 국학이라면 한문책이나 보고 읽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국학이란 인문 과학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자연 과학에도 관련되는 것으로 더욱이 생물학 방면에서 깊은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 많은 까치나 뫇공이는 미국에도 소련에도 없고 조선 사람이 常食하는 짬은 미국이나 소련에서는 그리 많이 먹지를 않는다. 그러니 자연과학에서는 생물학처럼 향토색이 농후한 것이 없어서 조선적 생물학 내지 조선 생물학이라는 학문도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석주명,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술과 식물명(국명)에 대한 사정 작업이 조선어학회의 표준말 제정과 밀접한 연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1936)의 머리말에 『조선식물향명집』 저자 중 하나인 이덕봉이 직접 표준말 중 식물어에 대한 사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¹⁹ 1937년 1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가 발간한 잡지 『한글』에 『조선식물향명집』에 실리게 될 국화와 식물의 조선어 표준명과 그 유래를 약론한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가 이덕봉의 이름으로 발표된 것에서 명확히 드러난다.²⁰

(3) 『조선식물향명집』 사정의 대상

『조선식물향명집』의 본문은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 1,944종에 대한 학명, 일본명 및 조선명을 단순 배열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종을 지칭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되는 한자명이 일부 병기되고, “재(栽)”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생 식물인지 혹은 재배 식물인지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 있다.²¹

조선의 옛 문헌에서 『조선식물향명집』과 유사한 것을 찾아보자면, 1802년에 이가환(李家煥)·이재위(李載威) 부자가 저술하고 식물에 대한 한자명과 한글명을 병기한 『물보(物譜)』가 이에 근접하고,²² 한자명과 한글명에 식물의 특징

“국학과 생물학”, 『나비 採集 二十年의 回顧錄』(현대문화독본, 1948), 63. 동시대를 살았던 나비 연구가 석주명의 이러한 언급을 통해 당시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이 공유하였던 사고의 한 측면을 간접적으로나마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식물향명집』의 제2저자인 도봉섭은 자신 스스로의 “민족적 조선 식물 연구”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이정, “식물 연구는 민족적 과제?: 일제강점기 조선인 식물학자 도봉섭의 조선 식물 연구”, 『역사와 문화』 25 (2013), 89-121.

¹⁹ 1936년 10월 28일에 발간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표준말 사정이 완성되기까지에 두터이 참조하여 주신 鄭世權, 韓相億, 金度演, 鄭完圭 제씨와 이 책의 發布用의 捐出하신 金容起씨와 각 전문 어휘에 관하여 多方으로 敎示하여 주신 朝鮮博物研究會 및 鄭文基: 水産語, 趙福成: 昆蟲語, 李德鳳: 植物語, 宋錫夏: 民俗語 제씨와 회의 시 모든 편의를 주신 京城 천도교회, 온양 영천의원, 온양 예수교회, 인천 제일공립보통학교 및 각 신문사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삼가 表한다.” 조선어학회,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조선어학회, 1936) 중 머리말 참조. (굵은 글씨 강조는 저자)

²⁰ 이덕봉, 앞 글 (각주 3), 10-14.

²¹ 한편 『조선식물향명집』은 본문에 개별 식물명에서 조선 특산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식물명 앞부분에 “ⓧ”표시를 하여 이를 구별하였다. 이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제2저자인 도봉섭의 ‘조선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도봉섭이 저술한 『경성부근식물소지』(1932)에서 비롯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정, 앞 글 (각주 18), 100 참조.

적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1798년 이만영(李晩永)이 저술한 『재물보(才物譜)』, 19세기 초엽 기술된 것으로 보이는 저자 미상의 『광재물보(廣才物譜)』와 이를 유희(柳僖, 1773-1837)가 정정 보완하고 집대성하여 1824년에 저술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명고(物名考)』가 있다.²³ 그러나 『물보』와 『물명고』 등은 근대 분류학에서 정립된 종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식물의 형태와 약성 분석에 의하여 이름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조선식물향명집』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²⁴

근대 식물 분류학의 관점에 입각한 조선 식물명에 관한 문헌으로는 모리 다메오가 조선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1921년 작성한 『조선식물명휘(朝鮮植物名彙)』가 있다. 이 책은 1884년 마쓰무라 진조(松村任三) 및 야타베 료오키치(矢田部良吉)가 공저한 『일본식물명휘(日本植物名彙)』를 참조했다. 『일본식물명휘』가 일본에 분포하는 2,406종의 식물을 대상으로 라틴 학명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고 그 일본명과 한자명을 병기하였다면, 『조선식물명휘』는 조선에 분포하거나 재배하는 3,576종의 식물에 대한 라틴 학명, 일본명 및 한자명을 병기하고 그것에 조선명, 조선식 한자명 및 서식지와 용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한 방대한 것이었다.

조선 전래의 식물명에 대한 기록이 있고, 이에 덧붙여 이미 일본인 학자들이 근대 식물 분류학에 따라 식물의 학명 및 조선명을 조사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로 『조선식물향명집』을 저술해야 했을까?

이에 대해 『조선식물향명집』의 “서”는 “대개 식물명에 관하여는 세계 공통 학술어인 학명 이외에 고래(古來)로 각국에는 기타 고유 명칭이 있는 것이다. 우리 조선에도 통일은 되지 못하였으나 고래로 식물의 고유 명칭이 빈다(頗多) 하니 차(此)를 수집하여야 되겠으며 또는 교수상(教授上) 실용상 하로바비 차(此)를 정리 통일할 필요에 직면한 우리 식물부원은 이래(爾來) 부단의 노력을

22 『物譜』는 18세기말-19세기 초 중엽에 저술된 字典類의 일종으로 식물을 禾穀, 蔬菜, 木果, 草果, 花卉, 藥草, 雜草로 나누어 한자명과 한글명을 기술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物名攷·物譜』(경문사, 1980) 참조.

23 유희의 『物名考』는 『물보』와 마찬가지로 자전류(字典類)의 일종인데, 4개의 대분류 중의 하나인 無情類(살아 있는 생물이지만 동작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 종류)에, 식물을 草와 木으로 나누어 초본에 307개의 이름과 그 연관 식물을, 목본에 78개의 이름과 그 연관 식물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기록하였다.

24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이 그 “序”에 참고한 옛 문헌으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보』, 『재물보』, 『광재물보』 및 『물명고』를 저술에 직접 참고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하여 왔다”고 기술하였다. 즉,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조선 식물명의 불통일성을 지적하고, 근대 식물 분류학의 과학적 견지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²⁵ 다른 한편 『조선식물향명집』의 “서”는 “조선어에 생소한 내외(內外) 선학들의 오전오기(誤傳誤記)도 불소(不少)하여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고 기술하였다. 이는 『조선식물명휘』 및 『조선삼림식물편』 등에 있는 조선명에 대한 파편적인 기록과 잘못된 오류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리고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서도 그 주요 내용으로 조선의 “향명(鄉名)” 또는 “방언(方言)”을 적시하였고, 『조선식물향명집』의 발간 주체이자 실질적 연구를 뒷받침한 조선박물연구회의 창립 목적을 “우선 첫 사업으로 조선에서 나는 동식물의 각 지방 명칭을 조사하여 통일시키고 장치는 지금까지 조선 말로 이름이 없는 동식물에는 따로 조선 이름을 제정하기로 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⁶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조선식물향명집』은 조선에 분포하던 식물에 대해 이전에 내려오던 식물 명칭을 위주로 근대의 과학적 분류법에 근거하여 그 이름을 통일하고 재정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을 포괄하고 있었다.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는 기존 기록된 조선명과 명칭이 존재하지 않는 식물에 대한 조선명(표준명 또는 통일명)을 부여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것이었다.²⁷

3. “사정 요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고찰

3.1. 사정의 원칙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는 그 서두에서 사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밝혔

²⁵ 저자들이 조선박물연구회 식물부를 구성한 이후 저자들은 저자 중 한 명이었던 도봉섭의 계농생약연구소에서 3년 간 100여 회의 회합을 통하여 나카이 다케노신이 확립한 조선 식물 분류 방법을 습득하고 각종 표본과 참고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경, 앞 글 (각주 6), 291 참조.

²⁶ “各學校博物敎員網羅 博物研究會創立”, 『동아일보』 1933. 6. 27.

²⁷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에서는 鄉名, 朝鮮名 및 方言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문맥상 향명과 조선명은 대체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방언은 한반도 내의 특정 지역에서 사용된 이름을 주로 뜻하지만 부분적으로는 향명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과거 수십 년간 조선 각지에서 실지 수집한 향명을 주로 하고 종래 문헌에 기재된 것을 참고로 하여 향명집을 상재(上梓)케 되얏으나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한 것에 한하여는 다음 제(譜) 점에 유의하여 학구적 태도로 정리 사정함.²⁸

이는 조선인이 실제 사용하는 이름을 주로 하고 문헌에 기록된 이름을 부차적으로 하여 사정하며 부득이하게 조선명이 없는 경우(“사정 요지”는 이를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하다고 표현하고 있다.)에는 각 호(號)에 규정된 바에 따라 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있는 조선명을 참고로 하고, 식물 형태상의 특징, 학명, 전설과 유래, 산지·발견자·생육 상태 및 색·냄새·맛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다.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조선명을 기록할 때 학명의 부여처럼 새로운 명칭으로 명명하는 방식은 상대적으로 쉬운 것이었다. 학명을 기재한 기재문과 사진을 두고 해당 종의 몇 특징을 추출하고 임의로 이름을 정하여 명명하는 것은 그다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다.²⁹ 그러나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방법을 택하였다. 이미 쓰이던 실제 조선 이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선 시대의 저작만이 아니라 고려 시대의 향약 연구서들까지 검토해야 했다.³⁰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이 이러한 노고를 아끼지 않은 것은 조선인 최초로 과학적 연구에 도전하면서도 식물명(국명)을 부여하는 작업은 일본인의 연구와 조선인의 연구가 동일하지 않다는 자각과 이를 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고, 자신의 작업이 전통 지식과 현대 지식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³¹

²⁸ 이하 “사정 요지” 원문의 한글화, 굵은 글씨 강조 및 ‘(A)’ ‘(a)’ 등의 기호 표현은 저자에 의한 것이다.

²⁹ 박만규는 4,000여 종의 식물명이 실린 『우리나라 식물 명감』(조선교육도서, 1949)의 저술에 대하여 “나는 내가 모은 표본물 가운데 <향명집>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은 그것들대로 모아서 새로 이름을 붙이고, <향명집>에 실린 이름 가운데서 나쁜 것만 골라 고쳤다”라는 방식으로 저술하였다고 하면서, 책 원고의 저술에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하여는 박만규, “개불알꽃은 요강꽃으로 고치고”, 『털어 놓고 하는 말 1』(뿌리깊은 나무, 1993), 47 이하 참조.

³⁰ 이정, 앞 글(각주 6), 291.

조금 더 상론해 보자면, 먼저 “조선 각지에서 실지 수집한 향명”은 “사정 요지” 각호 1에서 언급되는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과 “지방에 따 [른] 방언”을 의미하는데, 이는 식물명(국명)의 사용 주체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자각을 전제하고 있다. 즉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이 일본(또는 일본인)의 것과 구별되는 주체(identity)에 대한 설정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의미한다. 모리 다메조의 『조선식물명휘』가 학명과 일본명의 기록을 위주로 하고 조선명을 부차적으로 취급했다면, 『조선식물향명집』에서는 조선인이 부르는 조선명을 수미일관하게 정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시 말하면, 일본(또는 일본인)이 정리한 것과는 구분되는 조선인들의 이름을 분류 방법과 학명에 따라 과학화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조선식물향명집』은 식물명(국명)을 정하는 과정을 전문적인 과학 연구를 통해 명명자의 주관적 의도에 따라 식물의 명칭을 부여하는 방식의 명명이 아닌, 한국어(조선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 다수의 언중(言衆)이 형성한 언어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제 언어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에 착목했다. 이는 언어의 통유성(通有性), 즉 조선인의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조선식물향명집』의 편찬자들은 명명자에 의한 학명 명명과는 다른 원리, 즉 실제 식물명(국명)을 사용하는 주체들의 공통된 언어와 그 소통 수단 그리고 그 주체들이 식물과 맺어온 관계를 반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던 것이다.

나아가 『조선식물향명집』의 편찬자들은 “종래 문헌에 기재된 것을 참고로 하여 향명집을 상재(출간)”한다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 전통 지식과 현대 지식 사이의 연결 고리를 만들고자 하였다. 즉 식물명(국명)에 당대에 사용하는 언어 뿐 아니라 전통적 지식 또한 투영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전통 지식에 대한 고찰은 주된 것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고 간주한 것일까? 언어 사용의 주체와 언어의 통유성 관념이 주된 것으로 배치되고 역사적 고찰이 참고 사항이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근대 식물 분류학 이전의 본초학(약학) 등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점, 즉 기본적인 분류 단위로서의 종과는 다른 기준에 따른 분류 체계이므로 이를 종으로의 직접 변화시키기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³²

³¹ 같은 글, 292. 다만 이정은 이것이 곧 전통 자체의 인정은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³² 예컨대 『동의보감』은 “虎杖根, 감뻗불휘”를 기록하고 있으나 그 기록은 약성 분석을 주로 한 것이어서 현재의 왕호장근(*Fallopia sachalinensis*), 호장근(*Fallopia japonica*), 감절대

부분적으로는 문헌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이름이 존재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³³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정당시에 사용하던 조선명 자체가 식물 및 식물의 생태와 조선인의 삶이 맺어온 관계를 이미 집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기도 했다.³⁴

무엇보다 학명의 명명 원리와는 다르게 식물명(국명)의 사정에 있어서 실제 사용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식물학자에 의하여 새로 명칭을 정하는 방법은 최후 순위로 하고 있으며, 식물명(국명)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실제 사용하는 명칭, 식물의 형태적 특징, 식물의 생태 그리고 학명, 전설과 유래와 같은 인문학적 요소)을 고려했다. 이것은 식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물과 맺는 관계를 고려하고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서 식물명(국명)이 보편성을 가지도록 한 것인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식물명(국명)은 온전히 언어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여 오면서 식물과 맺어온 관계를 나타내고 설명하는 언어가 된다.³⁵

(*Fallopia forbesii*) 중 어느 것을 지칭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33 예컨대 본문의 후술 내용 중 “紫菀 텃알”에 관한 내용 참조.

34 예컨대 『동의보감』에 기록된 “五加皮, 쌍돌홉”이 다수의 오갈피나무속(*Eleutherococcus*) 식물 중에서 어느 종의 식물을 지칭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Eleutherococcus sessiliflorus*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하고 이에 대하여 널리 통용되는 명칭인 “오갈피나무”를 찾아 이를 채택하는 경우 이 명칭이 실제에서 사용되는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되어 역으로 『동의보감』에서 기록된 명칭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오갈피나무”가 당시 널리 통용된 명칭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정태현, 『조선삼림식물도설』 (조선박물연구회, 1942), 535 참조.

35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2』 (자연과 생태, 2016), 703; 김종원, 『한국식물생태보감 1』 (각주 11), 161은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개불알꽃과 망초에 대하여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 점령군의 정신머리에 ‘개불알’이든 뭐든 주인의식을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 년센스일지도 모른다”거나(김종원은 이 글에서 “개불알달”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기재한 일본인 모리 다메조의 『조선식물명휘』를 직접적 비판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조선식물향명집』 역시 *Cypripedium macranthum*을 “개불알꽃”으로 기록하였으므로 『조선식물향명집』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망초라는 한글명은 이 식물이 나타나면서 나라가 망했다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씁쓸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패배 의식을 심어주는 비루(鄙陋)한 명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으로 기록된 이름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인식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이 명명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정이라는 것을 간과한 이러한 비판은 그 비판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개불알꽃”과 “망초”라는 식물명은 조선인이 사용하던 이름을 사정하여 기록한 것이므로 『조선식물향명집』이나 그 저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선인들을 “식민지 점령군의 정신머리”를 가졌

3.2. 사정의 제1기준(유형):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

『조선식물향명집』은 “사정 요지” 서두에서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은 사정의 원칙 규정을 내세운 뒤 3개의 호(號)를 덧붙여 사정의 실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은 그대로 채용함.” 이 규정은 『조선식물향명집』이 식물명(국명)을 기록함에 있어서 채택한 사정의 제1 기준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사정이란 조선어학회가 한글 표준말을 정하면서 채택한 방법론으로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및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정한 사정의 기준은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는 것이었다.³⁶ 그런데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의 사정 기준에서는 조선어학회의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 사라지고,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으로 대체되었다. 이 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³⁷

먼저 “서울말”이라는 기준이 사라진 것은 식물은 그 기후와 지리적 환경에 따라 분포 범위에서 차이가 있고 사람처럼 서울로 모여 들어 중심을 형성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식물은 기후와 지리적 차이가 있어 특정 지역에만 분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그 지역에서 형성된 식물 이름이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³⁸ 예컨대, 강원도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Aristolochia mashuriensis*는 강원도 방언을 채택하여 “등칫”으로,³⁹ 북방계 식물로 북부 지방에서 우점성을 가지는 *Clematis sertatifolia*는 평안북도 방언을 채택하여 “개버무리”로,⁴⁰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다거나 “비루한 명명”을 하였다고 취급하는 것이 될 수 있다.

³⁶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 (동아일보사, 1933) 중 총론 부분 참조.

³⁷ 이우철, 앞 책 (각주 1), 3은 “국명(보통명)은 표준말의 제정 원칙에 따라 중부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로 정해진다. 만일 중부 지방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적당한 말이 없으면 각 지역에 사용하는 방언 중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을 선발하며”라고 하여 식물명을 일반적인 표준어의 사정 원리와 동일하게 보고 있으나 이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원칙과는 차이가 있는 주장이다.

³⁸ 식물이 분포하는 지역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리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식물구계(植物區系)라 한다. 한반도의 식물구계에 따른 식물의 분포에 대해서는 이우철, 앞 책 (각주 16), 61 이하; 성은숙, 앞 책 (각주 1), 107 이하 참조.

³⁹ 정태현, 앞 책 (각주 34), 183 참조. 『조선식물향명집』은 53에서 “큰귀방울(등칫)”으로 기록하였으나 『조선삼림식물도설』은 “등칫”을 추천명으로 기록하였다.

*Stauntonia hexaphylla*는 제주도 방언을 채택하여 “멸꿀”로,⁴¹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며 예로부터 통일된 이름으로 불리었던 *Zelkova serrata*는 전국에 통용되는 이름인 “느티나무”로⁴² 기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렇듯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 이름은 다른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울말을 기준으로 식물명(국명)을 정할 수 없었기에 “서울말”이라는 기준은 식물명의 사정에서 사라지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이라는 기준으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렇게 기록된 식물명(국명)은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언어가 아니라 그 식물이 분포하는 영역에서 식물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한 사람들의 언어가 사정되므로 서울과 지방의 직접적 경계선은 사라진다.⁴³

한편 조선어학회는 계층 및 계급별 언어가 서로 다른 것에 착목하여 표준말은 중류 사회의 언어로 한다는 것을 사정의 기준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식물향명집』은 사정에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 서두에서 밝혔듯이 이 책에 수록된 향명은 식물학자로서 조선 각지에서 이루어진 식물의 조사, 표본 채집지에서의 탐문 과정에서 채록한 것들이었다. 이 때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향명의 사용 주체는 식용으로, 약용으로, 화훼 및 목재 이용의 목적으로 직접 해당 식물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뜻하므로 언중이고 곧 민중(民衆)이 된다. 그것은 특정한 계층 또는 계급이 아니라 해당 식물을 주된 식량으로 하여 삶을 영위하는 화전민일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며 해당 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사용한 농민일 수도 있으며, 채취하여 약재로 가공하는 한의사일 수도 있었다. 이들이 식물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맺어온 관계를 반영하는 그 이름이 사정되고 기록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은 식물과 언어 공동체가 맺어온 관계가 반영되면서, 조선어학회가 사정 기준으로 언급한 “중류 사회에서 사용하는” 언어와는 차이가 있는 또 다른 언어가 된다. 이처럼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기준은 조선어학회의 사정 기준과 보편적인 성격을 공유하면서도 식물명(국명)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살린 것이었다.

40 정태현, 앞 책, 199.

41 같은 책, 209.

42 같은 책, 166.

43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서 지방에서 사용한 방언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관점에서 이루어진 비판적 고찰에 대해서는 서민정, 『20C 전반기, 표준어에 대한 인식 검토』(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6) 참조.

3.3. 사정의 제2기준(유형) : 동일 식물에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 것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서 제시한 구체적 사정 기준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제3호에 언급된 다음의 내용이다.

3. (A) 지방에 따라 동일 식물에 여러가지 방언이 있는 것 또는 같은 방언에 수종(數種)의 식물이 있는 때에는 (a) 그 식물 또는 그 방언에 가장 적합하고 보편성이 있는 것을 대표로 채용하고 기타는 (), 혹은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 명칭을 요하는 식물에는 다음 제(諸) 점을 고려하여 어두(語頭) 어미(語尾)에 적당한 형용사를 추가하여 차(此)를 구별함

가. 그 식물의 형태학상 특장(特長)

나. 그 식물의 세계 공통 학술어인 “사정 요지”

다. 그 식물에 관한 전설, 유래 등

라. 특수식물에 관하여는 산지, 발견자, 생육상태 등

마. 그 식물의 색(色), 취(臭), 미(味) 등⁴⁴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 제3호 중 “(A) 지방에 따라 동일 식물에 여러 가지의 방언이 있는 것”이란 제2호의, 문헌에 있는 조선명의 사용에 관한 기준에 앞서 식물명(국명)이 채택되는 사례에 해당하고, 원칙 규정에서 각지에서 실시 조사한 향명이 있는 경우이므로 번호 순서 상 뒤에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호에 앞서 사정되는 이름으로 생각된다. 제3호에 배치된 것은 가에서 마까지의 각목의 규정을 고려하여 적합성(適合性)과 보편성(普遍性)에 관한 규정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합적 이유와 당시 문장의 구성 방법이 현재와 달라 그 해석이 여간 어렵지 않은데, 각 문장의 중요 개념을 염두에 두면서 실제로 기록된 이름을 참고하여 실제 사정한 내용을 추적하여 보자. 먼저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문장 중간 (a)에 있는 “적합(適合)”이란 여러 대상이 있을 때 그 중에 가장 어울리는 대상을 뜻하고, “보편성(普遍性)”이란 널리 공통된 성질을 의미하므로 제1호에 언급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이라는 표현과 뜻이 통한다.

“지방에 따라 동일 식물에 여러 가지에 방언이 있는 것”은 하나의 식물에

44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사정 요지”의 번호 ‘1, 2, 3’은 각호(號)로, ‘가, 나, 다, 라, 마’는 각목(目)으로 지칭하였다.

여러 이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이름에서 선택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어두 어미에 적당한 형용사를 추가하여 새로운 이름을 창출하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면 사안 (A)는 각목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여 적합하고 보편성 있는 이름을 선택함으로써 대표적인 이름을 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A = a + \text{각목}$). 즉 각목의 규정은 수집한 여러 이름 중에서 적합하고 보편성이 있는 이름을 판단하여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식물학자의 역할은 단순히 향명을 수집하는 과정을 넘어 그것을 기초로 식물명(국명)을 정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조선식물향명집』은 식물의 형태 및 생태에 관한 과학적 고찰뿐 아니라 각종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고 보편성 있는 식물명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 해당하는 식물명(국명)의 한 예를 살펴보자.

- *Stellaria uliginosa* Murray ノミノフスマ

Byorug-namul 벼룩나물⁴⁵

『조선식물향명집』 이전에 저술된 『조선식물명휘』는 “雀舌草, 天蓬草, 벼룩나물”을 기록한 바 있다.⁴⁶ 그런데 『조선식물명휘』 이전에 우에키 호미키(植木秀幹)가 저술한 『조선의 구황식물(朝鮮の救荒植物)』은 당시 벼룩나물에 대한 방언을 “베룩나물(水原), 베룩이나물(洪川), 비리기초(義城), 수시렁덩이(南原), 별금자리(永同)”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⁷ 이는 『조선의 구황식물』에 기록된 방언(향명)이 실제로 사용된 방언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국립수목원에서 조사한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⁴⁸ 위와 같은 방언 중에서 벼룩나물과 유사한 이름인 “베룩나물”, “베룩이나물”, “비리기초”가 상대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을 보면 벼룩나물이라는 이름이 보편성이 있으며, 실제 그 형태가 벼룩처럼 왜소한 것을 고려한다면 각목에 근거하여 보다 적합성이 있는 이름도 되므로, 그에 따라 벼룩나물이라는 이름이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이 되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⁴⁹

45 『조선식물향명집』, 62.

46 森爲三, 『朝鮮植物名彙』 (각주 13), 148.

47 植木秀幹, 『朝鮮の救荒植物』 (朝鮮農會, 1919), 16.

48 이에 대하여는 정재민·박광우·정혜란·소순구·양형호·이강협·장계선, 『한국의 민속식물: 전통식식과 이용』 (국립수목원, 2013), 249 참조.

3.4. 사정의 제3기준(유형) : 문헌에 기재된 조선명

사정 요지의 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의 구체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2. 종래 문헌상에 기재된 조선명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채용함.” 실제 사정 과정에서 참고한 문헌으로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서”에 아래와 같은 문헌이 열거되어 있다. 하지만 “등(筥)”이라는 표현이나 나열된 문헌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참고 문헌은 더 광범위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⁵⁰

- 『향약채취월령』(1431)
 『향약집성방』의 『향약본초』(1433)
 『동의보감』(1613)
 『산림경제』(18세기 초)
 『제중신편』(1799)
 『방약합편』(1884)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1920)
 『조선식물명휘』(森爲三, 1921)
 『조선삼림수목감』(石戸谷勉·정태현, 1923)
 『조선삼림식물편』(中井猛之進, 1913~1939)

사정의 원칙 규정에 따라 각지에서 실제로 수집한 향명을 주로(우선)하고, 문헌에 기재된 이름은 참고로 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식물명(국명)의 사례로서 “자원(紫苑) 또는 개미취”의 이름이 선택되는 과정을 들 수 있는데, 이 식물에 대한 여러 문헌들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 紫苑 텃알⁵¹
- 紫苑 シヤン *Aster tataricus* L. 개미취(Kaimi-chhui)⁵²

49 김종원, 앞 책 (각주 11), 291은 벼룩나물은 일본명 ノミノフスマ(蚤の糞)과 잇닿아 있고 『土名對照鮮灣植物字彙』(1932)에 기록된 “국슈청이”가 본래 명칭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벼룩나물은 실제 조선에서 사용하던 방언에서 채록된 이름이고 표준명으로 통일되지 않고 지방별로 여러 이름이 공존하고 있었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래 명칭”은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0 이덕봉, 앞 글 (각주 3), 10은 옛 문헌 중 『詩經物名諺解』(1613)와 『譯語類解』(1690)도 참고하였음을 추가하여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51 허준, 『東醫寶鑑』, “탕액편”(1613) 참조.

- 자원 紫菀

탱알(東醫, 濟衆)⁵³

- *Aster tataricus* Linne シヤン 紫菀

Jawon 자원⁵⁴

- *Aster tataricus* Linne fil.

개미취(자원) シヤン⁵⁵

옛 문헌인 『동의보감』은 자원과 탱알을 기록하였으나, 『조선산야생약용식물』에서 개미취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덕봉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따르면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은 한자어 “紫菀”과 한글명 “탱알”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식물향명집』은 한자명 자원을 식물명(국명)으로 사정한 데 비해, 같은 취지의 “사정 요지”에 따라 식물명을 사정한 『조선식물명집』에서는 “개미취”를 식물명(국명)으로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앞서 언급한, 국립수목원이 2013년에 1,000종의 식물에 대하여 그 이용 실태와 방언을 조사하여 기록한 『한국의 민속식물』에 따르면, 개미취에 대한 지역 방언은 대체로 개미취 또는 그와 유사한 의미나 발음에서 파생한 이름이 대부분이고 극히 일부 지역에서 한자명에서 파생한 자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을 뿐 “탱알” 또는 그와 유사한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⁵⁶ “탱알”은 문헌에 있는 이름이기는 하였지만 실제 사용하는 이름은 아니었고 오히려 ‘자원’이 한의원을 중심으로 사용된 이름이었다. 『조선산야생약용식물』에 기록된 개미취는 그 즈음에 지역에서 불리는 방언이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이름으로 기록하였지만 『조선식물향명집』을 편찬할 때 그 이름이 “자원”보다 더 널리 사용되는 보편적인 이름인지에 대한 확신은 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래서 1937년의 기록에서는 한의원을 중심으로 사용된 “자원”

52 鄭台鉉, 林泰治, 『朝鮮産野生藥用植物』(朝鮮總督府林業試驗場, 1936), 225. 학명의 표기 방법은 원문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이하 같다.

53 이덕봉,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각주 3), 11.

54 『조선식물향명집』, 161.

55 정태현·도봉섭·심학진, 『조선식물명집』 (각주 3), 131 참조.

56 자세한 내용은 정재민 외, 앞 책 (각주 48), 918 참조.

57 한편 개미취의 유래에 대하여 김종원, 앞 책 (각주 35), 442은 “개미”를 물기를 머금은 또는 물기가 풍부한 땅을 지칭하는 사라진 우리말로 보아 그런 곳에서 나는 나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미를 그러한 의미로 사용한 예가 없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개미취는 개미+취의 합성어로 개미를 닮았고 나물로 먹는 식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추론된

이라는 생약명을 기록하였다가, 이후 개미취가 자생지에서 널리 사용하는 보편적인 이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선식물명집』에서 “개미취”라는 이름을 식물명(국명)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론된다는 것이다.⁵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조선식물명집』의 저자들이 자신들이 밝힌 “사정 요지”의 원칙과 기준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식물 이름의 수집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알게 된다.

한편 “문헌상에 기재된 조선명”에서 “조선명”은 『조선식물명집』의 범례와 색인에서 한자명을 조선, 중국, 일본의 한자로 나누어 표시한 점을 고려하면 한자명과 한글명을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한자명과 한글명이 모두 있을 때 그 중에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나타난 국화과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문헌에서 유래했다고 기록한 것 중에 어떤 이름은 한글명으로 기록한 반면에 어떤 것은 한자명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글명으로 기록된 이름: 우윳/牛蒡(제중신편)⁵⁹, 물쭉/蓼蒿(동의보감), 삼주/朮(제중신편), 여우오줌/天命精(동의보감, 제중신편), 진득찰/穉蓂(동의보감, 제중신편), 민들레/蒲公英(동의보감), 도꼬마리/蒼耳(동의보감, 방약합편).

한자명으로 기록된 이름: 자원(紫苑)/탱알(동의보감, 제중신편), 산국(山菊)/강성화(동의보감), 금불초(金沸草)/하국(동의보감, 제중신편, 방약합편).

아마도 『조선식물명집』 “사정 요지”의 원칙과 앞서 살펴 본 개미취의 사례에

다. 개미취는 땅속에서 줄기를 가지고 번식을 하는 데 이를 식용한다. 개미취의 “개미”가 곤충 개미(蟻)를 의미한다는 것은 경북 지역의 방언 중 깨뚜가리(또는 깨뚜까리)는 깨뚜(개똥벌레의 방언)+가리(단으로 묶은 곡식이나 장작을 차곡차곡 쌓은 더미)의 합성어로 개똥벌레를 모아 놓은 듯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개미취와 일맥상통하고, 19세기 저술된 유희의 『물명고』에 紫苑(자윳)에 대하여 종자가 검으며 뿌리와 잎을 식초로 저장하여 식용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검은 종자의 모양과 굵어진 땅속 줄기에 수염 같은 잔뿌리가 있는 모양이 개미 또는 개똥벌레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⁵⁸ 1936년도 발행 『조선식물명집』에 수재된 국명은 대체 그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전문적 사정에 의하여 모순된 점이 심한 것은 정정하여 그 정확을 기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조선식물명집』의 식물명(국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태현·도봉·삼·심학진, 앞 책, 5.

⁵⁹ 한자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나 그 발음 과정에서 이름이 변환되어 한글화된 경우에는 한글명으로 본다. 이하 같다.

비추어 보면, 한글명과 한자명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 사용되거나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하여 기록한 것으로 추론되지만 보다 정확한 것은 문헌상 기록만으로 그 사용의 실재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보다 넓고 면밀한 방언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5. 사정의 제4기준(유형): 같은 방언에 수종의 식물이 있는 때

3. 지방에 따라 동일 식물에 여러 가지 방언이 있는 것 또는 (B) 같은 방언에 수종(數種)의 식물이 있는 때에는 그 식물 또는 (b) 그 방언에 가장 적합하고 보편성이 있는 것을 대표로 채용하고 기타는 (), 혹은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 명칭을 요하는 식물에는 (c) 다음 제(諸) 점을 고려하여 어두(語頭) 어미(語尾)에 적당한 형용사를 추가하여 차(此)를 구별함

가. 그 식물의 형태학상 특징(特長)

나. 그 식물의 세계 공통 학술어인 “사정 요지”

다. 그 식물에 관한 전설, 유래 등

라. 특수식물에 관하여는 산지, 발견자, 생육상태 등

마. 그 식물의 색(色), 취(臭), 미(味) 등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의 제3호 중 “(B) 같은 방언에 수종(數種)의 식물명이 있는 때”라는 것은 하나의 이름이 여러 종의 식물을 지칭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합성과 보편성이 있는 특정 종의 식물을 대표적인 것으로 하여 그 방언을 기록하고, 나머지 식물의 종에 대해서는 어두나 어미에 적당한 형용사(정확히는 형용격)를 추가하여 새로이 이름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지로 “사정 요지” 제3호를 읽으면 [B = 대표종의 선정(b + 각목) + 나머지 종에 대한 명칭 부여(c + 각목)]이 된다. 즉, 대표종<B-1; 제4-1유형>은 각지에서 실지 사용하는 향명이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이 되고, 나머지 종<B-2; 제4-2유형>의 이름은 제4-1유형의 향명과 문헌에서 나타난 조선명을 기본으로 하여 어두나 어미에 형용사가 부가된 새로운 명칭이 된다.

여기서 제4-1기준(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여러 방언 또는 문헌에 기록된 이름이 있을 때 이 중에서 해당 식물에 대하여 적합성과 보편성이 있는 식물명을 먼저 찾아야 한다. 즉, 앞서 살핀 제1기준(유형), 제2기준(유형) 또는 제3기준(유형)에 대한 작업을 먼저 해야 하므로, 여간 힘들고 까다로

은 작업이 아니었다.⁶⁰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Rumex crispus* Linne 나가바긴גי신
Sorujaengi 소루쟁이
- *Rumex conglomeratus* Murray 아레치긴גי신
Mugbat-sorujaengi 묵발소루쟁이
- *Rumex japonicus* Meisner 기신기신
Som-sorujaengi 섬소루쟁이
- *Rumex stenophyllus* Ledebour 호소바긴גי신
Ganunip-sourjaengi 가는잎소루쟁이⁶¹

이와 관련하여 『조선식물명휘』는 *Rumex crispus*, *Rumex japonicus*, *Rumex stenophyllus* 모두에 대해 한글명을 “소루쟁이”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당시 “소루쟁이”가 특정 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소리쟁이속(*Rumex*)

60 근대 식물 분류학 도입 이전에 존재하던 식물명에 대하여 특정 종의 식물에 그 명칭을 정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현대의 중국명이 정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 한 단면을 알 수 있다. 1596년 중국 명나라의 李時珍(1518~1593)에 의하여 저술된 『本草綱目』은 본초로 사용된 海桐에 대하여 “生南海山谷中 樹似桐 而皮黃白色 有刺(남해 산계곡에서 자라고 오동나무와 비슷하다. 그 수피는 황백색이고 가시가 있다)”라고 하여 현재의 한의학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재배 식물로 알려진 담버슬나무와 유사한 *Erythrina variegata* L.(1753)(현재 중국명 刺桐)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준, 진주표 옮김, 『동의보감』(법인문화사, 2012), 2065 그러나 이 종의 식물이 자생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는 『동의보감』 등에서 종래 海桐을 “엄나무”(읍나무)로 이해하였고 『조선식물향명집』 124도 “엄나무(海桐皮)”(*Kalopanax pictum* Nakai)로 기록하였으며, 일본의 小野蘭山이 1804년에 저술한 『本草綱目啓蒙』에서도 『동의보감』(정확히는 『촌가구급방』)과 동일한 식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松村任三 및 矢田部良吉가 1884년 공저한 『일본식물명휘』, 141은 비슷한 약성을 가지면서 일본에 흔하게 분포하지만 줄기에 가시가 전혀 없는 일본명 トベラ(*Pittosporum tobira* Aiton)(한국명 “돈나무”)를 海桐으로 보았는데 최근에 정리된 “中國植物誌” [<http://www.eflora.cn>, (2018.10.30 접속)]은 *Pittosporum tobira* (Thunb.) Ait.(1811)의 중국명을 海桐으로 기록하고 있다. 수백 명의 식물학자가 동원되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도움까지 얻어 과학적 성과물을 집대성하였다는 “중국 식물지”가 일본의 연구에 잠식된 하나의 사례이다. 이것은 종래 본초학의 식물 명칭이 종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약성을 기준으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과 문헌 및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서술된 데서 주로 기인한다. 이처럼 제4·1유형의 사정은 식물의 종에 대한 과학적 이해, 식물의 형태와 생태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본초학을 비롯한 식물학의 역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로 하는 매우 방대하고 난해한 작업이다.

61 『조선식물향명집』, 56.

식물 지칭한 이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⁶²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적합하고 보편성이 있는 *Rumex crispus*를 “소리쟁이”라고 칭하고 나머지 종에 대하여는 어두에 각목 중 “라. 식물의 산지”[묵발 또는 섬(울릉도)에 주로 자란다는 의미]와 “가, 식물의 형태”(가는 잎)를 고려하여 형용격을 추가하여 신청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의 과정에서 식물의 생태(산지)와 형태를 고려하였는데, 이때 이미 식물명(국명)이 확립된 일본명을 참고하여 アレヂ(荒地=황무지)는 “묵발”으로 호소바(細葉)는 “가는 잎”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송곳과 같이 뾰족한 것을 뜻하는 “솔 옷”에 어원을 둔 것으로 이해되는 “소루쟁이”는 어원 불명의 지역 방언인 일본명 기시기시(ギシギシ)와는 전혀 다른 우리말 표현의 고유명이며,⁶³ *Rumex japonicus* Houtt.(현재 추천 국명은 “참소리쟁이”)를 보편적인 것으로 본 일본명과 달리 『조선식물향명집』은 조선의 생태적 특징에 맞게 *Rumex crispus* Linne를 보편적인 종으로 파악하여 그것을 기초로 식물명(국명)을 사정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는잎소루쟁이”의 유래 자체를 일본명에서 찾는 것처럼 접두어의 의미를 근거하여 유래를 파악한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으로 생각된다.⁶⁴

3.6. 사정의 제5기준(유형):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 명칭을 요하는 경우(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이 없는 경우)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의 마지막 유형은 실제 수집한 향명이나 문헌에서 조선명이 발견되지 않을 때 식물명(국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것이다. 이 유형은 “사정 요지”의 서두와 제3항에 밝혀져 있다.

⁶² 1613년에 간행된 허준의 『동의보감』 역시 한자명 羊蹄에 대한 한글명을 “솔옷”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 역시 특정 종을 지칭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허준, 진주표 옮김, 앞 책, 2065 참조.

⁶³ 김종원은 소루쟁이의 “소루”가 소리와 잇닿아 있는 말로 꽃대에 달려 있는 열매가 바람에 내는 소리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보고 있으나, 소리의 고어는 “소릭”(『월인석보』, 1459)로서 소루쟁이의 고어 “솔옷”과는 표기 방법이 같지 않아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송곳의 고어는 “솔옷”(『남명집언해』, 1482)이고, 소리쟁이는 오래전부터 송곳과 같이 뾰족한 뿌리를 약용한 점에서 비추어 뿌리의 모양이 뾰족한 것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원, 앞 책 (각주 11), 3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손병태, “植物性 鄉藥名 語彙 研究”, 『영남국문학』 30 (1996), 47 참조.

⁶⁴ 가는잎소루쟁이(가는잎소리쟁이)의 유래를 일본명에서 찾는 것으로는 이우철, 앞 책 (각주 1), 232 참조.

(D)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한 것에 한하여는 다음 제(譜) 점에 유의하여 학구적 태도로 정리 사정함. ...

3. 지방에 따라 동일 식물에 여러가지 방언이 있는 것 또는 같은 방언에 수종(數種)의 식물명이 있는 때에는 그 식물 또는 그 방언에 가장 적합하고 보편성이 있는 것을 대표로 채용하고 기타는 (), 혹은 (C)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 명칭을 요하는 식물에는 (c) 다음 제(譜) 점을 고려하여 어두(語頭) 어미(語尾)에 적당한 형용사를 추가하여 차(此)를 구별함

가. 그 식물의 형태학상 특장(特長)

나. 그 식물의 세계 공통 학술어인 “사정 요지”

다. 그 식물에 관한 전설, 유래 등

라. 특수식물에 관하여는 산지, 발견자, 생육상태 등

마. 그 식물의 색(色), 취(臭), 미(味) 등

이러한 유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i) (C) 실제 수집한 향명이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을 기본명으로 하고 각목의 각 요소를 참고하여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형용격)를 추가하여 새로운 식물명(국명)을 신청하는 경우 [(C) = 기본명(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 + (c + 각목)]와 (ii) (D) 기존의 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과 무관하게 별도의 식물명(국명)이 신청되는 경우[(D)=각목]가 그것이다.

(C)의 유형이 앞서 살핀 제4기준(유형)의 <B-1; 제4-1유형>과 다른 점은 <B-1; 제4-1유형>의 경우 여러 식물 종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던 것을 근대 식물 분류학이 도입된 후 이 식물들을 동정 및 분류함으로써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를 추가시켜 식물명(국명)이 신청되는 경우이지만, (C)의 유형은 기존의 명칭으로 포괄되지 않는 경우, 즉, 이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야광나무가 그러한 사례인데, 야광나무를 닮았다는 의미에서 어두에 “개”가 삽입되어 신청된 이름이지만 속(屬)이 달라 그 형태와 생태에서 차이가 있고, 분포지에도 차이가 있어 종래 야광나무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Cotoneaster Zabeli Schneider* 테프센샤린트우

Gaeyagwang-namu 개야광나무⁶⁵

- *Malnus baccata Bork. var. sibirica Schneider* 시베리야코리נג

Yagwang-namu 야광나무 (돌배나무)⁶⁶

(D)의 유형은 “사정 요지”의 서두에 있는 “교육상 실용상 부득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기본명조차 새로이 신청되는 경우이다. “사정 요지”의 각목에 표시된 바와 같이 식물의 형태가 처녀의 치마를 닮았다는 것에서 붙여진 처녀치마(가목),⁶⁷ 전설과 관련된 동자꽃(다목), 학명의 유래에 따른 바람꽃(나목) 등이 유형 (D)에 따라 신청된 식물명(국명)으로 판단된다.

- *Heloniopsis japonica Maximowicz* シロバナシヤウジャウバカマ
Chonyo-chima 처녀치마⁶⁸
- *Lychnis cognate Maximowicz* テフセンマツモト(エゾマツモト)
Dongjagot 동자꽃⁶⁹
- *Anemone narcissiflora Linne* ハクサンイチゲ
Baramgot 바람꽃⁷⁰

한편, (E)의 유형으로, 신청된 (D)의 이름을 기초로 하여 다시 (C)유형을 복합하여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를 붙여 신청하는 이름도 발견된다.

- *Anemone Raddeana Regel* アジマイチゲ
Gwongue-baramgot 평의바람꽃⁷¹

⁶⁵ 『조선식물향명집』, 85.

⁶⁶ 『조선식물향명집』, 86.

⁶⁷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이 처녀치마에 대한 일본명 ショウジョウバカマ(猩々袴)를 비스한 ショジョバカマ(處女袴)로 오인한 것에서 처녀치마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일본식 남성용 훌바지인 하카마(ハカマ)가 우리의 치마와 유사한 점에서 비추어 일본 명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는 추정된다. 허복구 외, 『한국의 야생화』 (중앙생활사, 2008), 194. 하지만 전설 속의 동물인 성성이(猩々)의 옛 표기는 샤우자우(シャウジャウ)여서 처녀(處女)를 뜻하는 일본어 쇼조(ショジョ)와는 발음상 차이가 있고, 일본어에 능통했던 『조선식물향명집』 저자들이 그러한 오해를 범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처녀치마의 ‘처녀’는 일본어와 직접적 관련은 없고 『조선식물향명집』에 기재된 ‘처녀이끼’, ‘처녀고사리’ 및 ‘처녀바디’와 마찬가지로 당시 조선인의 사용하던 일상 언어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⁶⁸ 『조선식물향명집』, 31.

⁶⁹ 『조선식물향명집』, 60.

⁷⁰ 『조선식물향명집』, 65.

3.7. 소결론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는 식물명(국명)을 사정함에 있어서 식물과 관계를 맺어온 주체인 조선 민중이 실제 사용하고 부르는 조선명을 우선하여 기록하고 옛 문헌에 나타나는 명칭을 보조적인 것으로 하여 조선에서 실제 사용되는 이름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근대 식물 분류학에 따라 새로이 발견되거나 추가되는 종에 대하여 이전에 부여된 이름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이 명칭을 부여하였으나, 그조차 실제 사용하는 기존 식물명(국명)을 기초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식물의 형태와 생태 및 인문학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 제시된 기준, 또는 그에 따라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은 다음 다섯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i) 제1기준(유형):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을 사용, (ii) 제2기준(유형): 조선에서 사용하는 조선명 중에 동일 식물에 다수의 방언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적합하고 보편성을 가진 이름을 선정, (iii) 제3기준(유형): 문헌에 기재된 조선명을 사용, (iv) 제4기준(유형): 같은 방언에 수종의 식물명이 있는 경우 보다 적합하고 보편성을 가진 종에 방언을 기록하고(제4-1유형), 나머지 종에 대하여는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를 붙여 이름을 신청함(제4-2유형), (v) 제5기준(유형): 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하거나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을 기본으로 하여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를 붙여 신청하거나 “사정 요지”의 나타난 각점을 고려하여 완전히 신청함. 위 기준(유형) 중 제1기준(유형), 제2기준(유형), 제3기준(유형) 및 제4-1기준(유형)은 기존의 이름으로 사정한 것이고, 제4-2기준(유형)과 제5기준(유형)은 새로이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행 연구 문헌 중 이우철의 『한국 식물명의 유래』에서 한국의 식물명(국명)을 (i) 전래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식물명, (ii) 학명에 따른 것, (iii) 외래명에 따른 것, (iv) 식물의 특성, 습성, 최초 채집지나 채집자명을 따서 제정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선식물향명집』이 뼈대가 되어 이루어진 우리나라 식물명(국명)의 형성 기준과 유형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편적인 분류로 판단된다.

4.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를 통해 본 식물명 유래에 대한 고찰

4.1.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의 의의

이덕봉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는 『조선식물향명집』에 사정된 국화와 139종의 식물명(국명)을 표준명이라고 칭하여 이름을 적은 후 그 옆에 한자명, 지방명(또는 이명) 및 문헌의 출처를 병기(併記)하고, 조선에서 기왕에 사용하거나 문헌에서 발견한 명칭이 아닌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새롭게 기록한 이름에 대하여는 “신칭”이라고 표시를 하여 그 내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 논문은 4면에 불과한 매우 짧은 글이지만, 위와 같은 간단한 내용의 병기 덕분에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서 표명한 사정의 원칙과 기준(유형)이 국화와 식물 139종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알게 해 준다. 이 논문에 병기된 내력을 참고하여 표준명으로 기록된 이름에 대한 간단한 국어학적(사전적) 해석을 가미하고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일본명과 종래 본초학의 역사에서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한자명을 추적하면, 『조선식물향명집』의 국화와 139종에 끼친 외국명의 영향 및 그 정도에 대해서도 개요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가진다. 특히 문헌에 기록되지 않고 당시 민간에서 널리 사용된 조선명과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신칭된 이름을 서로 구별하는 일이 현재의 시점에서는 매우 어려운데, 그것을 기록하고 밝혀 놓았다는 점에서 식물명의 유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기록된 표준명 중에서 (i) “약쑥”은 『조선식물향명집』에 존재하지 않고, (ii)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흰산쑥”은 표준명에서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며, (iii) “진느레미영경퀴”와 “사레물”이라는 표준명은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지느레미영경퀴”와 “사데물”로 기록되어 그 표기에서 차이로 있고, (iv) “흰쑥”, “산흰쑥”, “흰잎영경퀴”, “흰떡쑥” 및 “흰민들레”의 “흰(白)”은 『조선식물향명집』에서 모두 “흰”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는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가 『조선식물향명집』의 최종 원고가 아니며, 1937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두 달 사이

에도 『조선식물향명집』의 원고는 계속 정정되고 보완되고 있었음을 추론케 한다. 그러나 나머지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의 표준명과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은 동일하므로 최종 원고가 아니라는 점이 그 중요성과 의의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사정 요지”를 통해 본 『조선식물향명집』의 국화와 식물명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정 요지”는 원칙의 규정과 다시 세분화된 5가지의 기준 또는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러한 5가지의 세분화된 기준 또는 유형별로 식물명(국명)이 국화와 139종에서 어떻게 사정되었는지를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를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간단한 개념을 정의하기로 한다.

- 기본명 : 종래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향명이나 문헌에서 나타난 조선명을 사정한 것으로 형용격 접두어가 없는 이름을 의미한다. “쑥”, “쑥부장이” 및 “영경귀” 등이 기본명에 속하는 식물명(국명)이다. 예외적이지만 『조선식물향명집』은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향명이나 문헌에서 나타난 이름이 없는 경우 기본명을 신청하기도 하였다(제5유형). 그 예로 ‘숨다리’가 있다.
- 파생명 : 기본명의 어두 또는 어미에 기본명을 수식하는 형용사(형용격)를 추가하여 새로운 이름을 정한 경우의 식물명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명에 형용사(형용격)가 부가되어 별도의 의미가 생겨나는 이름이다. 쑥에 대하여 “외잎쑥”, 쑥부장이에 대하여 “개쑥부장이”, 영경귀에 대하여 “바늘영경귀” 등이 파생명에 속한다.⁷²
- 2차 파생명 : 기본명을 기초로 파생명이 만들어진 이후 여기의 어두 또는 어미에 다시 형용사(형용격)가 추가되어 별도의 의미가 부가된 이름을 말한다. 기본명 쑥에서 파생명 제비쑥이 형성되고, 이에 기초하여 형성된 “개제비쑥”이라는 이름이 2차 파생명이 되는데, 이것은 기본명 “쑥”에 “개”와 “제비”라는 둘 이상의 의미가 새로이 추가된 식물명(국명)이다.

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기록된 국화와 식물

72 비단 이것은 『조선식물향명집』이 채택한 방법론일 뿐만 아니라, 식물명(국명)을 정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1884년 마츠무라 진조 및 야타베 료키치에 의하여 저술된 『일본식물명휘』의 일본명과 최근 완성된 “중국 식물지”(http://www.eflora.cn)의 중국명이 그러하고, 영명의 다수 일반명에서도 이러한 형태가 쉽게 발견된다.

명(국명) 139종을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서 명시한 5가지로 세분화된 기준 또는 유형을 아래와 같은 원칙 하에 분류하였다.

- 제1유형 : 신칭되지 않은 표준명 중 통용되는 이름이라는 의미에서 “(通)”이 부가되어 있거나 다른 지방명(또는 이명)이 없고 문헌에 있는 이름으로 기록되지 않은 표준명을 제1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제2유형 : 신칭되지 않은 표준명으로서 지방명(또는 이명)이 함께 기록된 경우 제2유형으로 보았다.
- 제3유형 : 신칭되지 않은 표준명으로서 옛 문헌의 출처가 표시되어 있고 그 문헌에 기재된 한글명 또는 한자명을 표준명으로 채용한 경우 제3유형으로 분류하였다.
- 제4유형 : 제1유형, 제2유형 또는 제3유형에 속하는 기본명을 표준명으로 하고, 이 기본명을 토대로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형용격)가 부가된 파생명이 함께 있는 경우 이를 제4유형으로 보았다. 그 중 제4-1유형은 신칭되지 않은 것으로 앞의 제1, 2, 3유형에 속하는 경우이고, 제4-2유형은 제4-1유형을 기초로 하여 신칭된 이름으로 기본명의 어두 어미에 형용격이 부가된 경우이다.
- 제5유형 : 신칭된 표준명으로서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및 제4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유형별에 맞추어 실제 표준명을 어떻게 사정하였는지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상세한 내용은 부록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대한 분석 검토표 참조).

표 2.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의 표준명을 “사정 요지” 기준으로 분류한 내용

기준 또는 유형		주요 내용	각 유형별 표준명	
제1유형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조선명	15종	71종
제2유형		적합하고 보편적인 조선명(방언)	24종	
제3유형		문헌에 기재된 조선명	9종	
제4유형	제4-1유형	적합하고 보편적인 조선명(식물)	23종	68종
	제4-2유형	조선명을 기초로 신칭된 표준명	59종	
제5유형		전체가 신칭된 표준명	9종(6종)	
합계			139종	

분류자의 기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위의 결과는 여러 가지 점을 시사해 준다. 먼저 필자가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나타난 기록을 근거

로 위와 같이 표준명을 분류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식물향명집』 “사정 요지”의 각 원칙과 기준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식물명(국명)을 정하는 실질적 원칙이자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4-2유형과 제5유형은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신칭된 이름이다. 그 종의 수는 139종 중 68종(약 48.9%)으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과학적 견지에서 고찰한 식물의 종수가 거의 두 배에 가까웠다는 점에서 식물의 관찰에서 근대 식물 분류학의 과학적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준다.

그런데 제4-2유형은 신칭된 식물명(국명)이기는 하지만, 조선 각지에서 수집한 향명과 문헌에 나타난 조선명을 기본명으로 하여 어두 또는 어미에 형용사(형용격)를 추가한 파생명이다. 즉, 그 이름의 뿌리는 조선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수를 제외하면 기존 이름과 무관하게 신칭된 이름은 139종 중 9종에 불과하다. 그나마 9종 중 3종은 기본명의 식물과 형태에서 차이가 있고 속이 다르며 식물에 대한 종래 이용에 대한 역사성도 다르기 때문에 제4-1기준(유형)에 따른 사정 작업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5유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조선에서 기왕에 사용하고 있는 기본명을 토대로 파생된 표준명에 해당한다. 즉, 3종은 쑥갓에 대하여 “개쑥갓”, 인진(더위지기)에 대하여 “솔인진”, 머위에 대하여 “개머위”라는 이름이 부여된 것이어서 그 기본명은 조선명이다.

따라서 정확하게 조선명과 다른, 완전히 별도의 식물명(국명)이 부여된 것은 6종에 불과하며, 이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이 식물명(국명)을 이해하고 사정함에 있어서 일본 및 일본인과 구별되는 조선 및 조선인이라는 기준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식물향명집』 저자들의 작업에 대해 “조선 산의 조림, 조선의 문화, 조선의 전통과 같은 지역적 관심과 연결지는 향토화”라거나 “식민지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근대 학문에 식민성을 극복할 씨앗도 있었”다고 평한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된다.⁷³

참고로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를 토대로 신칭한 경우 제3호의 각목을 어떻게 고려하여 식물명(국명)에 반영하였는지를 신칭명을 대상으로 하여, 어두 또는 어미에 추가된 형용사들의 사전적 의미와 학명을 대조하고 그 유래

73 이정, 앞 글 (각주 6), 297.

를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다.⁷⁴

표 3.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서 신칭된 표준명의 유래

신칭된 표준명의 고려 요소	각 유형별 표준명
가.식물의 형태적 특징	27종
나.“사정 요지”	26종
다.전설과 유래	0종
라.산지, 발전자 등	10종
마.식물의 색, 냄새, 맛 등	5종
합계	68종

따라서 이를 근거하여 살펴보면, 최소한 국화와 식물명(국명)의 유래에 대해, 학명에 의존한 것이 가장 많은 사례 중의 하나라고 언급한 것은,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전체 139종 중 26종에 불과하므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⁷⁵

4.3. 국화와 식물명에 대한 외국명(중국명/일본명)의 영향과 상관성 고찰

(1) 『조선식물향명집』 국화와 식물명에 대한 중국명의 영향 고찰

한·중·일 3국은 예로부터 유사한 문화를 보유했으며, 표기 방법으로 한자를 공유하는 등 잦은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소통하여 왔다. 『조선식물향명집』에 대한 흔한 오해 중의 하나는 학명과 일명(일본 식물명)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⁷⁶ 나아가 앞서 살폈듯이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 자체를 일본명을 번역하거나 차용하였다고 보는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

먼저 중국명이 『조선식물향명집』에 어떠한 정도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제5유형은 기존의 명칭과 관련 없이 새로이 명칭이 부여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생략하였다.⁷⁷ 한

74 각목에서 각 요소 중 “사정 요지”와 기타 요소가 중복된 경우(예컨대 학명이 식물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경우) 학명이 미친 영향을 살피기 위하여 “사정 요지”에서 유래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분류하였고, 2차 파생명의 경우 파생명을 통해 별도 유래가 검토되었으므로 그 유래는 2차 파생명이 만들어진 그 최종의 형용격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하여 주의를 필요하다.

75 이우철, 앞 책 (각주 1), 4.

76 같은 책, 4.

77 앞서 살폈듯이 제5유형 중에서 “개썩갓”, “솔인진”, “개머위”는 이미 존재하던 기본명에 형용

자명도 조선에서 만들어져 불리어 온 이름일 수 있으므로(예컨대 “망초”), 한자명이라고 해서 반드시 중국에서 유래한 이름은 아니다. 한자명이 중국명에서 유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i)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나타난 표준명을 별도의 의미 추출 없이 한자 표기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그것이 가능한 경우 한자명으로 분류하고, (ii) 그렇게 분류된 한자명이 중국 본초학을 집대성한 이시진의 『본초강목』과⁷⁸ 현재의 “중국 식물지”에 중국명 또는 그 이름으로 기재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 그곳에 기록된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상관성 정도를 판단하였다.⁷⁹ (iii) 그 명칭이 『본초강목』 및 “중국 식물지”와 동일한 한자로 표기되고 있으면, 상관도를 “높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이 있으나 표현이 다소 상이하거나 지칭하는 식물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상관도를 “낮음”으로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대상이 된 130종의 식물명(국명) 중 고유명은 105종이었고, 한자로 표기 가능한 한자명은 25종이었다. 한자명 25종 중에서 11종이 중국명과 상관도가 높고, 2종이 낮은 정도의 상관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근대 식물 분류학 도입 이전의 조선 본초학 관련 문헌에서는 중국의 영향이 압도적이었던 것에 비해서 『조선식물향명집』에서 그 영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서 기록된 표준명에 대한 중국명의 영향 분석

기준 또는 유형	표준명의 유래	
	고유명	한자명(중국명의 상관도)

격을 수식한 것이어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나, 그 이름의 기본명이 앞의 유형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분석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 이외의 제5유형의 신청명 중에서도 고유어로 표현된 것과 한자어로 표현된 것을 나누어 분석해 볼 수는 있으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역시 유래를 약론한 것에 불과하고 『조선식물향명집』이 저술된 당시 중국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이 중국에서도 존재하지 않아 그 정확한 유래를 분석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5유형의 분석은 생략하였다.

⁷⁸ 이시진, 『圖解本草綱目』(高文社, 1973)를 주 교재로 하였다.

⁷⁹ 이러한 방법은 『조선식물향명집』이 저술될 당시 중국은 정치적 분열과 군사적 대립이 이어지던 시기로서 근대 식물 분류학에 근거하여 식물 종을 분류하고 중국명을 기록한 체계적 문헌이 없는 상태 즉, 근대 분류학에 따른 식물명집 또는 식물도감이 부재한 상태였으므로, 당시에 저술된 문헌을 기준으로 직접적인 대조가 불가능하여 간접적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위 방법은 간접적 성격의 고찰이기 때문에 중국명의 영향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1유형	10종	5종(높음:4종)
제2유형	19종	5종(높음:3종/낮음:1종)
제3유형	6종	3종(높음:1종/낮음:1종)
제4-1유형	19종	4종(높음:1종)
제4-2유형(기본격)	51종	8종(높음:2종)
합계	105종	25종(13종)
	130종	

(2) 『조선식물향명집』 국화와 식물명에 대한 일본명의 영향 고찰

일본은 이미 19세기 초반에 린네의 근대 식물 분류학에 따른 종 분류를 독자적으로 행하고 그에 따른 식물도감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이나 중국에 비하여 훨씬 더 빨리 일본명의 조사와 사정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선행 조사와 연구 결과물이 조선과 중국에 영향을 미친 것은 지리적 인접성에 비추면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국화와 139종 중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및 제4-1유형의 식물명(국명) 71종은 종래 조선에서 사용하는 실제 이름과 문헌에 기재된 이름에서 유래하므로 일본명의 영향과는 관련이 없다.⁸⁰ 일본명의 영향은 명칭이 신청된 제4-2유형과 제5유형에서 발견되는데, 그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기

80 김중원, 앞 책 (각주 11), 785는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담배풀(*Carpesium abrotanoides* Linne)을 일본명 ヤブタバコ(藪煙草: 담뱃처럼 자라는 담배풀이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는 경기도 방언으로 실제 사용된 이름을 채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담배풀이 “담뱃풀”이라는 표기로 경기도 방언에서 유래한다는 것은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외에도 石戶谷勉, 『朝鮮漢方藥料植物調査書』(朝鮮總督府, 1917), 6에도 기록되어 있다. 국립수목원, 앞의 책, 936에 의하면 망초(*Conyza canadensis* (L.) Cronquist)의 충청도 방언으로, 같은 948에 의하면 개망초(*Erigeron annuus* (L.) Pers.)의 전라도 방언으로 현재에도 담배풀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담배풀은 담배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진 여러 식물을 지칭하는 우리말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김중원, 앞 책 (각주 35), 488은 “곰취라는 한글명은 1921년 『조선식물명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며, 제주도에서 백두산까지 분포한다는 정보와 함께, 한글로 곰취, 영어로 komchui라 기재했다. 곰취>곰취라는 명칭에서 곰은 일본명에 잇닿아 있다. 일본명[雄宝齋]에는 남성적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남성을 뜻하는 수컷 웅(雄)과 곰 웅(熊) 자가 똑같은 한글 소리이고 의미도 어상반하기 때문이다”라 하여 일본명에서 유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 12는 “곰취, 곰주”라는 이름이 실제 조선에서 사용한 이름을 채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곰취”는 1527년 崔世珍에 의하여 저술된 『訓蒙字會』에 “곰돌이”로 1824년 유희에 의하여 저술된 『物名考』에 “곰취”(가람문고본 기준)로 기록된 것에서 볼 때 우리말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위하여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기재된 표준명 중 신청된 명칭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류하였다.

① 『조선식물향명집』은 학명을 기준으로 하여 일본명과 조선명을 함께 기록하고 있으므로 『조선식물향명집』에서 동일한 학명으로 기록된 일본명과 조선명을 직접적 비교 대상으로 하였고, 조선명 및 일본명을 해석과 대조의 편의를 위하여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명칭을 기준으로 기본명, 파생명 및 2차 파생명으로 분류하였다.

② 조선명 및 일본명의 의미와 유래에 대하여는 그 해석의 기준 시점을 통일하고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최신의 것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선명에 대해서는 『표준국어대사전』(2018)을 기본으로,⁸¹ 일본명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권위있는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 1862-1957)의 『일본식물도감(日本植物圖鑑)』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문헌을 참고하였다.⁸²

③ 이에 따라 (i) 조선명의 기본명이 일본명의 기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 및 어형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관성을 “높음”으로, (ii) 기본명은 불일치하지만 파생명을 이루는 형용격의 의미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관성을 “보통”으로,⁸³ (iii) 기본명이 불일치하고 파생명의 형용격이 유사하나 그 의미와 내포에서 차이가 있으면 상관성을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2차 파생명에서는 기본명이 다르더라도 2개 이상의 형용격의 표현에서 동일한 의미와 어형 구조

81 제5유형에서 발견되는 신청된 박쥐나물, 기생초, 솜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명은 실제 사용하거나 문헌에 기재된 조선명이어서 일본명의 영향이 없으므로 기본명의 해석은 박쥐나물, 기생초 및 솜다리에 한정되었다. 그 밖에 관한 작업은 기본명에 추가된 형용격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표준명의 해석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82 최신의 편집본으로 大橋廣好 외 편저, 『新牧野日本植物圖鑑』(東京: 北隆館, 2008)을 주 교재로 하였다.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술 시기인 1937년에 근접하여 식물명의 유래를 해설한 것으로 일본에는 1940년 저술된 牧野富太郎, 『牧野日本植物圖鑑』(東京: 北隆館, 1940)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식물명의 유래를 해설한 적절한 문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한 해석의 기준 시점을 일치하기 위하여 해설 자료를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83 이우철, 앞 책 (각주 1)은 파생명의 형용격만 일본명과 유사해도 일본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나, 근대 식물 분류학에 따라 분류되는 종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이름에 형용격을 추가하여 식물명(국명)을 신청하는 방법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법이다. 또한 파생명에서 형용격은 형태 분류학이 주종을 이루던 시대에는 식물의 형태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기본명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면 영명의 일반명(common name)에서 우리의 식물명(국명)이 유래되었다고 보는 기이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도 하다.

를 가지는 경우에는 상관성을 ‘높음’으로 분류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신칭된 68종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5.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의 표준명과 일본명과의 상관성

기준 또는 유형		일본명의 상관성(학명 상관성)				유형별 표준명	
		높음	보통	낮음	없음		
제4-2 유형	파생명	0종	22종(9종)	11종(6종)	21종(8종)	54종	59종
	2차파생명	1종	0종	3종(1종)	1종	5종	
제5유 형	기본명	1종	0종	0종	2종(1종)	3종	9종
	파생명	3종(1종)	1종	0종	2종	6종	
합계		5종(1종)	23종(9종)	14종(7종)	26종(9종)	68종(26종)	

분석 결과 139종의 표준명에서 일본명과 “높음” 정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명칭은 제4-2유형의 2차 파생명에서 1종, 제5유형의 기본명과 파생명에서 4종을 합하여 <표 6>에 기재된 5종이었다.

그 외에는 제4-2유형 및 제5유형의 신칭명에서 기본명이 일본명과는 현저히 달라 높은 정도의 상관성을 가진 식물명은 발견되지 않았고, 파생명의 형용격의 유사성에서 “보통” 정도가 23종, “낮음” 정도가 14종이었다. 따라서 일본명과 상관성을 보이는 이름은 전체 139종에서 높음 정도의 5종을 포함하여 42종이었다.

그나마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라틴 학명을 해석하여 파생어나 기본명에서 그 의미의 유사성을 추적한 결과 표준명에서 라틴 학명과 그 의미에서 유사성을 보이는 식물명(국명)은 26종이었다.⁸⁴ 그중 일본명의 영향을 받은 표준명 중 “높음”에서 1종, “보통”에서 9종, “낮음”에서 7종이 라틴 학명의 영향을 받은 이름이 중복적으로 발견되었으므로 실제 순수하게 일본명 자체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은 전체 25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명(일본 식물명)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이 가장 많다는 지적은⁸⁵ 국화와 식물명(국명)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분석이라

⁸⁴ 라틴 학명의 의미 해석은 大橋廣好 외 편저, 앞 책;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0); William T. Stearn, *Botanical Latin*, 4th edition (Newton Abbot: Timber Press, 1992)을 참고하였다.

⁸⁵ 이우철, 앞 책 (각주 1), 4.

고 판단할 수 있다.⁸⁶

표 6.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의 표준명에서 일본명과의 상관성이 “높음”인 식물명

No.	표준명	분류	일본명/학명	유래	상관성(학명)	유형
022	너른외잎쭉	2차파생명 (외잎쭉)	ヒロハヒトツバヨモギ (廣葉一葉艾)/ <i>Artemisia stolonifera</i>	가.형태	높음(없음)	4-2
041	박쥐나물	기본명	オホバカウモリ(大葉蝙蝠) / <i>C. farfaraefolia</i> v. <i>ramosa</i>	가.형태	높음(없음)	5
042	게박쥐나물	파생명	カニカウモリサウ(蟹蝙蝠草) / <i>Cacalia adenostyloides</i>	가.형태	높음(없음)	5
043	산박쥐나물	파생명	ヤマカウモリ(山蝙蝠) / <i>Cacalia auriculata</i> v. <i>matsumurae</i>	가.형태	높음(없음)	5
044	귀박쥐나물	파생명	ミミカウモリ(耳蝙蝠) / <i>Cacalia auriculata</i>	가.형태	높음(있음)	5

5. 결론

본 논문은 근대 식물 분류학의 토대 위에서 한반도의 식물에 대해 학명과 조선명(국명)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조선식물향명집』에서 조선명을 정리하기 위해 채용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그 서두의 “사정 요지”를 통해 살펴보고, 그에 따라 식물명(국명)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 하에 사정되었는지의 실제 모습을 이덕봉의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를 통하여 검토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조선식물향명집』의 조선명 사정에 중국명과 일본명이 끼친 영향의 정도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명이 세계 보편어로서 식물에 대하여 세계와 소통하는 창구이고 식물과

86 이윤옥은 “우리 고유 이름마저도 창씨개명으로 없애버렸다. 그런 와중에 우리 땅에 나고 자라던 수많은 풀, 꽃, 나무도 제 이름을 잃고 일본 이름으로 굳어졌던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윤옥, 앞 책 (각주 10), 서문. 창씨개명이라고 함은 그가 언급하는 바처럼 원래 있던 이름을 고쳐서 일본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본명과 상관성이 있는 이름은 수십 년에 걸친 저자들의 조사 작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식물명(국명)이 존재하지 않아 신칭된 이름들에서 생겨난 것이므로 창씨개명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의 책 전체를 살펴봐도 그의 주장에 부합하는 창씨개명된 이름은 발견하기 어려웠다.

식물의 종을 과학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구라면, 식물명(국명)은 한국어를 공유하는 언어 공동체로의 한민족이 한반도에 분포하는 식물과 맺어온 관계를 설명하는 언어로서 식물 자체의 형태와 생태 그리고 그 식물의 기능과 인문적 요소를 일반 언중의 관점에서 해석한 압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자들은 식물명(국명)을 사정할 때 실제 조선인이 사용하는 이름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삼고 문헌에 기재되어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이름으로 보완함으로써 근대 과학의 토대 위에서 분류하는 식물의 종을 조선인이 부르는 언어로 재해석하였다.

종래의 식물 인식과 분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이름을 가지지 못한 식물명을 신칭하는 경우에도 못 언중이 인식한 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는 식물명(국명)이 형성되는 일반적인 방식이기도 하지만, 국권이 침탈되고 일제에 의한 민족의 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조선식물향명집』의 저술 과정에서 “내선일체로 일본과 조선이 한 나라인데 조선명을 새로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며 당국의 심한 제재가 있었으나 당시 농촌에서는 일본어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를 교육하기 위하여 일본명을 번역하는 것이라고 무마시켰다”는 일화는 식물학이라는 중립적 과학의 외피 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권이 찬탈된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음을 알게 한다.⁸⁷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간에서 실제 사용하는 이름과 종래 문헌 기록에 따라 예부터 내려오던 식물명(국명)이 주된 것이 되고, 당시 이름이 존재하지 않던 것에 새로이 이름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하여 식물명(국명)의 주된 내용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⁸⁸ 따라서 선행 문헌 중에서 『조선식물향명집』 또는 그 저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업적을 위하여 일본어로 지은 이름을 무비판적으로 번역하였다거나 『조선식물명휘』에서 일본식 이름에 끼워 맞추는 식물명을 무의식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형편이라는 주장은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⁸⁹

87 이우철, “한은 정태현 박사 전기”, 『하은생물학상 25주년』 (하은생물학상이사회, 1994), 81.

88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연구, 1910-1945: 조일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199 이하는 “조일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조선식물 연구”의 결과로 조선 식물연구의 다양한 근대성이 추구되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89 한편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은 박쥐나물 등과 같이 일본명과 높은 상관도를 보이는 식물명도 발견되는 바 이를 외래문화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라 볼 것인지 아니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가 어떻게 실제에서 관철되었는지를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를 중심으로 하여 살핀 것이고, 이는 『조선식물향명집』에 수록된 국화와 식물 139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조선식물향명집』에 수록된 1,944종 전체를 망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기록되지 못한 국화과를 제외한 나머지 식물명(국명)이 어떠한 원리와 방법으로 형성된 이름인지를 개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에서 나타난 식물명(국명)의 사정 원칙과 유형에 비추어 보면, 일제강점기 이전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식물명, 『조선식물향명집』 저술 직전까지 일본 또는 일본인이 채록한 조선명, 그리고 현재까지 식물명(국명)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 식물 이용 방식 및 관련 지식에 대한 보다 넓고 세밀한 조사와 연구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존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식물명(국명)의 유래를 논하거나 언급한 선행 문헌 중 일부는 위와 같은 과학적 작업을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유래를 미리 재단하는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조선식물향명집』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일본 또는 일본인에 의해 연구된 조선명 기록을 일본명을 조선에 강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식물명이 『조선식물향명집』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를 바로 식민 잔재로 연결짓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조선어사전』 등의 문헌이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기술된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 『조선식물향명집』에 직접 언급된 『조선어사전』은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학습 교재를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여 저술된 것이고,⁹⁰ 그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선 식물명의 극히 일부가 기록된 문헌이며, 『조선식물명휘』는 조선에 분포하는 식물과 그 식물명에 대한 식민 지배를 위한 조사 작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것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조선어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는 일본명과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오류는 별론하더라도, 이를 의도적으로 일본명을 강제하기 위하여 조선명을 왜곡한 기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면 식민 잔재의 청산(?)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차이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서 확인되는 바에 따르면, 『조선식물향명집』의 식물명(국명)의 주된 흐름은 조선에서 실제 사용하거나 사용한 이름이거나 이를 기초로 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⁹⁰ 이승녕, 『한국학고사전총서3—조선어사전』 (아세아문화사, 1976), v면 ‘조선어사전 해제’ 참조.

예컨대 중국에서 전래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조선에서 서로 다른 식물로 이해하여 온 해동(海桐)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돈나무(*Pittosporum tobira* Ait)로 보아⁹¹ 음나무(*Kalopanax septemlobus* (Thunb.) Koidz.)로 보는 조선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조선어사전』(1920)은 ‘海桐(히동)’에 대하여 “[植] 음나무에 同じ”라고 하였고,⁹² 『조선식물명휘』(1921)는 *Kalopanax ricinifolius*에 대하여 “음나무, 히동목”이라고 하여⁹³ 조선의 이해 방식에 따라 해설하고 있다.⁹⁴

『조선식물향명집』은 이러한 문헌의 오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밀한 표본 채집과 조사, 수십 년간의 실제 조선명 조사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식물명 1,944종을 학명에 맞게 정리한다는 것은 여전히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오류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이후 이어져 왔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하고 검증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일본 또는 일본인이 저술한 문헌에 기록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금기시하거나 선형적으로 배격하고, 실태 조사의 부분적 의미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식물명(국명)의 유래를 이해할 때 오류를 낳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위 선행 문헌 중 일부는 일본명에서 영향을 받은 식물명(국명)을 바로 잡는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말에서 유래한 “광대나물”, “벼룩나물”, “벼룩이자리”, “호랑버들”, “쑥부쟁이”, “망초”, “담배풀”, “곰취” 등을 일본명으로 만들어 버리거나 식민의 잔재로 보는 결과를 낳기도 하고,⁹⁵ 우리말 문

91 松村任三・失田部良吉, 앞 책 (각주 60), 141.

92 朝鮮總督府, 『조선어사전』 (조선총독부, 1920), 925.

93 森爲三, 앞 책 (각주 13), 266.

94 비슷하게 중국에서 유래된 厚朴에 대하여 일본은 일본 목련(*Magnolia obovata* Thunb.)으로 보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후박나무(*Machilus thunbergii* Siebold & Zucc. ex Meisn.)로 이해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식물명휘』, 167은 일본이 아닌 조선과 동일한 견해에서 해설하고 있으나, 『조선어사전』(1920), 972는 “[植] 厚朴 ほほのき”로 해설하여 일본목련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 종래 우리 문헌인 정약용의 『雅言覺非』에서도 “厚朴”을 제주도에 분포하는 雜樹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조선어사전』의 기록은 일본명을 조선에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류 또는 혼동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식물향명집』은 厚朴을 조선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한 바에 따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조선식물향명집』, 73 참조.

95 이러한 취지의 견해로 김종원, 앞 책 (각주 11), 161, 349, 285, 291, 844; 김종원, 앞 책 (각주 35), 484, 488 참조. 한편 광대나물, 벼룩나물, 벼룩이자리가 우리말에 유래하였고, 망초와 쑥부

현에서 유래한 “금낭화”라는 식물이 불구(佛具)에서 유래된 일본명 케만sau(華鬘草)의 장엄한 불구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고 타박하여 오히려 제대로 된 일본명을 식물명(국명)으로 사용하자는 취지의 주장으로 귀결되기도 한다.⁹⁶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식물명(국명)이 사정되고 기록된 『조선식물향명집』의 성과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자료를 근거로 식물 분류학, 생태학, 언어학 및 역사학(과학사)을 종합하여 개별 식물명(국명)의 유래를 같이 살펴 그 연구를 집적시키는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식물명(국명)의 유래에 대한 고찰은 위에 언급된 바와 같은 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귀납적 방법에 따라 추론하고 결론짓는 작업이, 일부 선행 문헌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조선식물향명집』의 “사정 요지”, 그리고 그 원칙과 기준이 반영된 “조선산 식물의 조선명고”에 대한 본고의 고찰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투고: 2018년 7월 16일, 심사 완료: 2018년 8월 31일, 게재 확정: 2018년 9월 28일)

쟁이라는 이름을 식민의 잔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견해로는 조현래, “식물명의 유래”, 『인터넷신문 레디앙』 2018.4.17; 7.6; 8.14; 10.4 기사 참조.

⁹⁶ 이윤옥, 앞 책, 144.

부록 1. ‘조선산식물의 조선명고’에 대한 분석 검토표

No.	기재내용			분류	비고(일명/중명/학명과의 상관성)				유형
	식물명	한자명	지방명 (또는 이명)		신칭	일명/학명 또는 중명	요지	상관성	
001	가새풀 ¹	著	배암이지, 배암세, 뽕꽃, 톱풀, 지네풀(沃溝)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02	말가치	和尚菜, 葫蘆菜	말가치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003	단풍취		바위나리(朴淵박연)?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04	우왕 ²	牛旁, 風黏(濟衆)	우방	n/a	고유명/문헌	n/a	n/a	n/a	제3유형
005	쑥	蓬, 艾, 萋蒿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06	사철쑥	茵陳蒿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07	개사철쑥	茵陳蒿, 蕭, 青蒿		신칭	2차파생명 (사철쑥)	カハラニンジン(河原人參) / <i>Artemisia apiacea</i>	가. 형태	없음 /없음	제4-2유형
008	제비쑥	牡蒿, 齊頭蒿	물쑥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¹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톱풀'로 기재하고 있음.

²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우왕'으로 기재하고 있음.

009	개재비쑥 ³	菴藷, 狗乳花	제비쑥(濟州), 간주불(東醫)	신칭	2차파생명 (제비쑥)	イヌヨモギ(犬艾) / <i>Artemisia Keiskeana</i>	가. 형태	낮음/ 없음	제4-2유형
010	개풍쑥	邪蒿, 臭蒿, 黃花蒿		신칭	파생명(쑥)	クソニンジン(蕪荳蘆薈) / <i>Artemisia annua</i>	마. 냄새	보통/ 없음	제4-2유형
011	털산쑥			신칭	파생명(쑥)	ウラジロヒメイハヨモギ (裏白姫岩艾)/ <i>Artemisia gmelin</i>	가. 형태	낮음/ 없음	제4-2유형
cf. [원산쑥] : 조선식물향명집에 기록된 이름이나, '조선산식물의 조신명고'에는 기재되지 아니하였음.									
012	섬쑥			신칭	파생명(쑥)	タンナミニネヨモギ(耽羅 嶺艾)/ <i>Artemisia hallaisanensis</i>	나. 학명	낮음/ 있음	제4-2유형
013	외잎쑥			신칭	파생명(쑥)	ヒトツバヨモギ(一葉艾) / <i>Artemisia integrifolia</i>	나. 학명	보통/ 있음	제4-2유형
014	뽕쑥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015	비단쑥			신칭	파생명(쑥)	タカネキヌヨモギ(高嶺 絹艾)/ <i>Artemisia lagocephala</i>	가. 형태	보통/없음	제4-2유형
016	터위지기(東醫)	茵陳蒿	인진	n/a	고유명/문헌	n/a	n/a	n/a	제3유형
017	비쑥			신칭	파생명(쑥)	ハマヨモギ(浜艾) / <i>Alt</i>	나. 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³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말은대쑥(물명고)에 따른 고유명'으로 기재하고 있음

								<i>emisia scoparia</i>				
018	물쑥(東醫)				<i>n/a</i>	고유명/문헌		<i>n/a</i>	<i>n/a</i>	<i>n/a</i>	제3유형	
019	흰쑥 ⁴				신칭	파생명(쑥)		ハイイロヨモギ(灰色艾) / <i>Artemisia siebersiana</i>	마.색	낮음/없음	제4-2유형	
020	그늘쑥				신칭	파생명(쑥)		모리요모ギ(森艾)/ <i>Artemisia sylvatica</i>	나.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021	산쑥 ⁵				신칭	2차파생명(쑥)		シロヨモギ(白艾)/ <i>Artemisia stelleriana</i> var. <i>sachalinensis</i>	라.산지	낮음/없음	제4-2유형	
022	니르외잎쑥 ⁶				신칭	2차파생명(외잎쑥)		ヒロハヒトツバヨモギ(廣葉一葉艾)/ <i>Artemisia stolonifera</i>	가.형태	높음/없음	제4-2유형	
023	약쑥 ⁷	蓬,艾,藜蒿,艾蒿,炙草,藜蒿	사지발쑥(東醫)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1유형	
024	쑥부장이 ⁸	馬蘭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4-1유형	
025	개쑥부장이				신칭	파생명(쑥부장이)		ヨメナ(嫁菜) / <i>Aster altaicus</i>	가.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⁴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흰쑥’으로 기재하고 있음.

⁵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산쑥’으로 표기하였음.

⁶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넓은잎외잎쑥’으로 기재하고 있음.

⁷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약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음. ‘사지발쑥’이라는 고명이 있는 것에 비추어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에 의한 항해쑥(*A. argyi*)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⁸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쑥부장이’로 기재하고 있음.

026	웅근나물(忠南)	女菀		<i>n/a</i>	고유명	<i>n/a</i>	<i>n/a</i>	제1유형
027	가는쑥부장이			신칭	파생명 (쑥부장이)	ホソバヨメナ(細葉藥菜) / <i>Aster holophyllus</i>	나. 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028	까실쑥부장이	馬蘭		신칭	파생명 (쑥부장이)	コンギク(紺菊) / <i>Aster trinervius</i>	가. 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029	매역취 ⁹			<i>n/a</i>	고유명	<i>n/a</i>	<i>n/a</i>	제1유형
030	해국			<i>n/a</i>	한자명	중국명: 紫莢(?)	없음	제4-1유형
031	왕해국			신칭	파생명(해국)	オボタルマギク(大達磨菊)/ <i>Aster oharai</i>	보통/없음 가. 형태	제4-2유형
032	버드쟁이나물(洪川) ¹⁰		장작개비나물	<i>n/a</i>	고유명	<i>n/a</i>	<i>n/a</i>	제2유형
033	참취	東風菜	취, 개금추(忠北), 동취(海州)	<i>n/a</i>	고유명	<i>n/a</i>	<i>n/a</i>	제2유형
034	자원 ¹¹	紫莢	탕알(東醫, 濟衆)	<i>n/a</i>	한자명/문헌	중국명: 紫莢	높음	제3유형
035	삼주(濟衆)	蒼朮, 白朮, 馬 薊, 山薊	창출, 백출	<i>n/a</i>	고유명/문헌	<i>n/a</i>	<i>n/a</i>	제3유형
036	도깨비바늘(京 城),	婆婆針	산비름, 가막싸리	<i>n/a</i>	고유명	<i>n/a</i>	<i>n/a</i>	제4-1유형

9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미역취'로 기재하고 있음.

10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버드쟁이나물'로 기재하고 있음.

11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조선산 야생약용식물(정태현 외 1 인, 1936)에 따른 '개미취'로 기재하고 있음.

037	가느도깨비바 늘 ¹²	桐花菜		신칭	파생명 (도깨비바늘)	ホソバノセンダングサ(細葉の梅檀草)/ <i>Bidens parviflora</i>	가. 형태	보통/없음	제4-2유형
038	가막사리(海州)		독개비나물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39	우산나물(江原, 咸南)	兎兒傘	삿갓나물(鬱陵)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40	에기우산나물		우산나물, 일산나물, 사 파굴(濟州)	신칭	파생명 (우산나물)	코야프레카사(小破れ傘) / <i>Cacalia aconitifolia</i>	가. 형태	보통/없음	제4-2유형
041	박쥐나물			신칭	기본명 (일본명)	오토바카우모리(大葉蝠 蝠)/ <i>Cacalia farfaraefolia</i> v. <i>ramosa</i>	가. 형태	높음/없음	제5유형
042	계박쥐나물			신칭	파생명 (박쥐나물)	카니카우모리사우(蟹蝠 蝠草)/ <i>Cacalia</i> <i>adenostyloides</i>	가. 형태	높음/없음	제5유형
043	산박쥐나물 ¹³			신칭	파생명 (박쥐나물)	야마카우모리(山蝙蝠) <i>Cacalia auriculata</i> , v. <i>matsumurae</i>	라. 산지	높음/없음	제5유형
044	귀박쥐나물			신칭	파생명 (박쥐나물)	미니카우모리(耳蝙蝠) <i>Cacalia auriculata</i>	나. 학명	높음/있음	제5유형

¹²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깨치발’로 기재하고 있음.

¹³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이를 박쥐나물에 통합하고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045	병풍 ¹⁴				n/a	한자명	중국어: 大叶蟹甲草 ニセタイミンガサ(偽大明率)/ <i>Cacalia pseudotaimingasa</i>	n/a	없음	제4-1유형
046	이리병풍				신칭	파생명(병풍)		나.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047	금잔화		金盞花		n/a	한자명	중국어: 金盞花	n/a	높음	제1유형
048	과꽃(海州)		翠菊, 佛蠟, 藍菊	외국화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49	영경귀		大薊	항가새(東醫), 소왕이품(海州), 조계, 수박풀, 불뽕이(咸北), 조방가새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50	진느레미영경귀 ¹⁵		飛廉, 小薊, 飛維		신칭	파생명(영경귀)	히레아사미(諸薊) / <i>Carduus crispus</i>	나.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051	고려영경귀				신칭	파생명(영경귀)	테프산얀나기아사미(朝鮮柳薊) / <i>Cirsium coreanum</i>	나.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052	술영경귀 ¹⁶				신칭	파생명(영경귀)	야나기아사미(柳薊) / <i>Cirsium lineare</i>	나.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053	바늘영경귀				신칭	파생명(영경귀)	하리아사미(針薊) / <i>Cirsium rhinoceros</i>	가.형태	보통/없음	제4-2유형

¹⁴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큰병풍'으로 기재하였고,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조선식물명집(정태현의 2인, 1949)에 따른 '병풍'으로 하고 있음.
¹⁵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진느레미영경귀'으로 기재하였고,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조선식물명집(정태현의 2인, 1949)에 따른 '진느레미영경귀'로 표기하고 있음.
¹⁶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우리나라 식물명집(박만규, 1949)에 따른 '바늘잎영경귀'를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054	도깨비영경귀			신칭	파생명 (영경귀)	テウセンキセルアサミ (朝鮮煙管蓴) / <i>Cirsium Schantereuse</i>	가.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055	흰잎영경귀 ¹⁷			신칭	파생명 (영경귀)	ウラジロアサミ (裏白蓴) / <i>Cirsium wlassovianum</i>	마.색	보통/없음	제4-2유형
056	담배풀(京畿)	天名精, (麥句) 薑, 天門精	학술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57	여우담배풀 ¹⁸			신칭	파생명(담배 풀)	テウサンカンクピサウ(朝鮮雁首草) / <i>C. glossophylloides</i>	마.냄새	없음/없음	제4-2유형
058	여우오줌 (東醫, 濟) ¹⁹		엇장사풀(白羊山)	n/a	고유명/문헌	n/a	n/a	n/a	제3유형
059	왕담배풀	千日草, 鶴蟲	천일초(慶北), 여우오 줌(東醫, 濟衆)	신칭	파생명 (담배풀)	オホカンクピサウ(大雁 首草)/ <i>Carpesium macrocephalum</i>	나.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060	잇꽃	紅藍花, 大紅花, 紅花	이시꽃(海州)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61	빼꼭재		초방이나물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62	제충국	除蟲菊	백화제충국	n/a	한자명	중국명: 除虫菊	n/a	높음	제2유형

¹⁷ 조선식물향명집(1937)에는 ‘흰잎영경귀’로 기재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¹⁸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천일담배풀’로 하고 있음.

¹⁹ 조선식물향명집(1937) 및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긴담배풀’을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063	붉은제충국	除蟲菊		<i>n/a</i>	한자명	중국어: 紅花除虫菊	<i>n/a</i>	높음	제1유형
064	쑤갓(京畿, 忠淸)		쑤과(海州)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065	개쑤갓			신칭	파생명(쑤갓)	/ 호로ギク(野檻樓菊) / <i>Senecio vulgaris</i>	가. 형태	없음/없음	제5유형
066	감국(方藥)	黃菊, 野菊, 苦薺		<i>n/a</i>	한자명	중국어: 野菊	<i>n/a</i>	낮음	제3유형
067	산국	山菊, 甘菊花	강성화(東醫), 감국(方藥), 돌괴(濟州)	<i>n/a</i>	한자명	중국어: 甘菊	<i>n/a</i>	낮음	제2유형
068	솔인진			신칭	파생명(인진)	イハインチン(岩茵陳) / <i>Chrysanthemum Pallasianum</i>	가. 형태	보통/없음 ²⁰	제5유형
069	구절초(京畿)			<i>n/a</i>	한자명	중국어: 紫花野菊	<i>n/a</i>	없음	제4-1유형
070	산구절초			신칭	파생명(구절초)	テウセンヤマギク(朝鮮山菊) / <i>C. s. v. acutilobum</i>	라. 산지	낮음/없음	제4-2유형
071	바위구절초			신칭	파생명(구절초)	チョウセンイワギク(朝鮮岩菊) / <i>C. sibiricum v. alpinum</i>	라. 산지	낮음/없음	제4-2유형
072	국화(通)	菊花		<i>n/a</i>	한자명	중국어: 杭菊/菊花	<i>n/a</i>	높음	제1유형
073	조뽕이		떡재, 떡재, 뽕떡재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²⁰ 기본명이 일본명과 일치하고 있으나, 인진은 '인진쑤'이라는 명칭으로 당시 조선에서도 사용하였던 이름이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일본명과 상관성을 '보통'으로 파악함.

074	기생초			신칭	기본명 (한자명)	ハルシヤギク(페르시아菊) <i>Coreopsis tinctoria</i>	가. 형태	없음/없음	제5유형
075	패리뱅이	黃花菜, 黃瓜菜, 黃鸛菜	박조가리나물, 순풀(제주)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76	수리취(水原其 他)		부수깃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77	큰수리취			신칭	파생명 (수리취)	ヲヤマボクチ(雄山火口) <i>Serratula excels</i>	나. 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078	개수리취 ²¹			신칭	파생명 (수리취)	ヒゴタイ(어원불명) <i>Echinops setifer</i>	가. 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079	하년초 ²²	夏年草(美醫), 婦勝, 婦勝, 八哥草	한년초	n/a	한자명/문헌	중국명; 鱧腸	n/a	없음	제3유형
080	망초		망국초, 칠노풀(京畿)	n/a	한자명	중국명; 小蓬草	n/a	없음	제2유형
081	개망초			신칭	파생명(망초)	ヒメムカシヨモギ(姫昔蓬) <i>Erigeron annuus</i>	가. 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082	실망초	野塘蒿, 蓬		신칭	파생명(망초)	アレチノギク(荒地野菊) <i>Erigeron linifolius</i>	나. 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083	등골나물	山蘭, 澤蘭	삼장거리장대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²¹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한국식물명감(1963)에 근거하여 '질국대'를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²²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한국식물도감(경태현, 1957)에 근거하여 '한련초'를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084	별등골나물	柳好花		신칭	파생명 (등골나물)	ヨツハサワヒヨドリ(四 葉草輻) / <i>Eupatorium Kirilowii</i>	라.산지	없음/없음	제4-2유형
085	피등골나물 ²³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1유형
086	숨나물	大丁草, 大丁黃	숨나물, 분추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087	풀숨나물		풀숨나무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088	떡쑥(咸鏡)	鼠麴草, 清明草	괴쑥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4-1유형
089	흰떡쑥 ²⁴			신칭	파생명(떡쑥)	シロバナハハコダサ(白 花母子草) / <i>G. luteo-album</i>	나.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090	왜떡쑥			신칭	파생명(떡쑥)	エゾノハハコダサ(蝦夷 母子草)/ <i>G. uliginosum</i>	라.산지	없음/없음	제4-2유형
091	해바라기	向日葵, 轉日蓮, 迎陽花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4-1유형
092	각시해바라기 ²⁵			신칭	파생명 (해바라기)	ヒメヒマワリ(姫-)/ <i>Helian thus debilis</i> v. <i>cucumerifoli</i>	가.형태	보통/없음	제4-2유형

²³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피등골나물'로,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추천명을 조선식물명집(1949)에 근거하여 '골등골나물'로 기재하고 있음.

²⁴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흰떡쑥'으로 기재하였으나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떡쑥에 통합하여 이명처리하고 있음.

²⁵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한국식물명집(1963)에 근거하여 추천명을 '애기해바라기'로 하고 있음.

093	풍단지	芋乃, 了治竹	왜갑자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94	지청개(忠南)	泥胡菜, 水苦蕒	지치광이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095	조밥나물	刺采花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096	고려조밥나물			신칭	파생명 (조밥나물)	ヒロハカウゾリナ(卑陋 刺刀菜)/ <i>Hieracium</i> <i>coreanum</i>	나. 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097	계목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098	금혼초			n/a	한자명	중국명; 猫儿菊	n/a	없음	제1유형
099	금불초	施覆花, 金佛草(濟衆)	배암풀, 하국(東醫, 方藥)	n/a	한자명	중국명: 旋覆花/金沸草	n/a	높음	제4-1유형
100	가는금불초	金贊花		신칭	파생명 (금불초)	ホソヲグルマ(細葉小車) / <i>lnula britanica</i> v. <i>linearifolia</i>	나. 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101	버들금불초	小黃花		신칭	파생명 (금불초)	カセンサウ(歌仙草) / <i>lnula salicina</i>	나. 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102	목향	土木香, 黃花菜		n/a	한자명	중국명; 土木香	n/a	높음	제1유형
103	고들빼기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104	까치고들빼기			신칭	파생명 (고들빼기)	クサノワウハシノゲシ(- 葉の野芥子)/ <i>Lactuca chelidoni</i>	가. 형태	없음/있음	제4-2유형

105	이고들빼기 ²⁶			신칭	파생명 (고들빼기)	ヤクシサウ(藥師草)/ <i>Lactuca denticulata</i>	나.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106	왕고들빼기		방가지씩(京畿)	신칭	파생명 (고들빼기)	アキノノゲシ(秋の野芥子)/ <i>Lactuca laciniata</i>	가.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107	쌈바귀(江原)	黃瓜菜	쌈배, 듄박, 씀나물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108	선쌈바귀	尖刀子草, 山苦蕒	밌들레, 쌈바귀, 듄박, 씀나물	신칭	파생명 (쌈바귀)	タカサゴサウ(高砂草)/ <i>Lactuca chinensis</i>	가.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109	벌은쌈바귀 ²⁷	剪刀股	쌈배, 듄박, 씀나물(忠北)	신칭	파생명 (쌈바귀)	チシバリ(地縛り), ツルニカナ(蔓苦菜)/ <i>Lactuca debilis</i>	가.형태	낮음/없음	제4-2유형
110	벌쌈바귀	野苦蕒	쌈바귀, 씀차귀	신칭	파생명 (쌈바귀)	ノニカナ(野苦菜)/ <i>Lactuca matsumurae</i>	라.산지	보통/없음	제4-2유형
111	산쌈바귀			신칭	파생명 (쌈바귀)	ヤマニカナ(山苦菜)/ <i>Lactuca raddeana</i>	라.산지	보통/없음	제4-2유형
112	갯쌈바귀			신칭	파생명 (쌈바귀)	ハマニカナ(浜苦菜)/ <i>Lactuca repens</i>	라.산지	보통/없음	제4-2유형
113	생지	蒿蕒, 芭, 生菜, 蒿蕒	부루(黃海) 부룟동(濟衆)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²⁶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이고들빼기'로 기재하고 있음.
²⁷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한국식물도감(1957)에 근거하여 추천명을 '벌은쌈바귀'로 기재하고 있음.

114	습다리				신징	기본명	テウセンウスユキサウ(朝 鮮薄雪草)/ <i>Leontopodium</i> <i>coreanum</i>	나.학명	없음/있음	제5유형
115	곰취			곰취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116	세뿔곰취 ²⁸				신징	파생명(곰취)	サンカタツハフキ(三片-) / <i>Ligularia deltoidea</i>	나.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117	머위		胡蘆包葉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118	개머위				신징	파생명(머위)	타우프키(塔藷) / <i>Petasites saxatilis</i>	가.행태	없음/있음	제5유형 ²⁹
119	모련채 ³⁰		毛連菜	방패지풀(海州)	n/a	한자명	중국명; 毛連菜	n/a	높음	제2유형
120	서덜취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121	분취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122	금강분취				신징	파생명(분취)	모리히고타이(森平江帶) / <i>Saussurea diamantiaca</i>	나.학명	없음/있음	제4-2유형
123	은분취				신징	파생명(분취)	우라ギンヒゴタイ(裏銀 平江帶) / <i>Saussurea erirolepis</i>	나.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124	습분취				신징	파생명(분취)	우라ジロヒゴタイ(裏白)	나.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²⁸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조선식물명집(1949)에 따라 '긴잎곰취'를 추천명으로 기재하고 있음.

²⁹ 머위와 개머위의 분포지 및 일상적 식용의 관습 등에 비추어 볼 때, 옛이름 머위가 개머위를 함께 지칭하는 이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개머위는 별도로 신징한 이름으로 이해됨.

³⁰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한국식물도감(1957)에 따라 '쇠서나물'을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平江帶)/Saussurea eriphylla	가. 형태	없음/없음	
125	버들분취		맛달	신취	파생명(분취)	ミヤコアザミ(都節)/Sau ssurea maximowiczii	가. 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126	톱분취			신취	파생명(분취)	ノコギリヒゴタイ(鋸平 江帶)/S. maximowiczii v. serrata	나. 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127	실버들분취 ³¹			신취	2차파생명 (버들분취)	キヌヒゴタイ(絹平江帶) /S. salicifolia v. angustifolia	나. 학명	낮음/있음	제4-2유형
128	쇠채	雅薺, 筆管草		n/a	고유명	n/a	n/a	n/a	제1유형
129	쑥방망이			신취	파생명 (쑥방망이)	カウリンギク(紅輪菊) /Senecio argunensis	가. 형태	없음/없음	제4-2유형
130	쑥방망이		폴습나물, 용박본죽(濟 州), 하국(方藥)	n/a	고유명	n/a	n/a	n/a	제2유형
131	바위쑥나물			신취	파생명 (쑥나물)	イハラクグルマ(岩小車) /Senecio phaeanthus	라. 산지	보통/없음	제4-2유형
132	진득찰(濟衆, 東 醫)	絳薺, 天名精, 亞婆針	진든출(水原), 희금, 도꼬마리	n/a	고유명	n/a	n/a	n/a	제4-1유형

³¹ 국가표준식물목록(2018)는 조선식물명집(1949)에 따라 '산골취'를 추천명으로 하고 있음.

133	털진득찰			신칭	파생명 (진득찰)	ケナモミ(毛雌菜もみ) <i>Stegesbeckia pubescens</i>	나.학명	보통/있음	제4-2유형
134	방가지뚥 苦菜, 苦蕒菜	고들빼이, 방지동굴돌웃, 씌방대 잔굴(濟州), 손바귀, 고갯네기(東醫)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135	사려물 (水原) ³²		삿비물(忠淸)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2유형
136	민들레	蒲公英, 蒲公英, , 白鼓釘	민들네, 포공영, 인즘방이(東醫)	<i>n/a</i>	고유명	<i>n/a</i>	<i>n/a</i>	<i>n/a</i>	제4-1유형
137	흰민들레 ³³		고들빼이	신칭	파생명 (민들레)	テウセンシロタンボホ(朝鮮白-) / <i>Taraxacum</i> <i>coreanum</i>	마.색	보통/없음	제4-2유형
138	도꼬마리(方藥)	蒼耳, 蒼耳, 蒼耳子, 蒼耳	돈고마리(東醫), 창의자, 창이자, 되꼬리(海州)	<i>n/a</i>	고유명/문헌	<i>n/a</i>	<i>n/a</i>	<i>n/a</i>	제3유형
139	백일홍	百日紅, 百日草, 江西拉花	백일초	<i>n/a</i>	한자명	중국명; 百日菊	<i>n/a</i>	높음	제2유형

³²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사태'말로 기록하였고, 국가표준식물목록(2018)은 조선식물명집(1949)에 근거하여 '사태'를 '사태'로 하고 있음.

³³ 조선식물향명집(1937)은 '흰민들레'를 추천명으로 표기하였음.

The Origin of Korean Plant Common Names, Seen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Determination Principles” of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CHO Minje (Sigong Law, P.C.)

LEE Woong (Eco Soup Ecology Research Center)

CHOI Sungho (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plant common names recorded in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the first botanical book based on modern botanical science, published in 1937.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determining Korean plant common names were explained in the “Determination Principles” at the beginning of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This article also studies “The Review of Joseon’s Common Names on the Plants of Joseon” written in 1937, which briefly discussed the origin of Korean plant common name focusing on the Asteraceae plant distributed in the Korean peninsula before the publication of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While the scientific name, an internationally recognized universal term, is a world-wide communication tool through which plants and species are identified, the Korean plant common name would be a summarized expression,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the plants distributed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perspective of general public. Although both names are based on science, they are based on different principles. According to our research, the authors of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focused on the plant names most commonly used among the Korean people, supplementing those terms with historic names recorded in the literature.

Keywords. *Joseon singmul hyangmyeongjip*, plant name, scientific name, common name, Korean common name, Japanese common name, Chinese common name